

이재명, “제도개선 이뤄지면 기본주택 현실화 가능” 국회의원에 협조 요청

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조정훈·김홍걸 의원 GH 기본주택 홍보관 방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주택은 제도 개선과 GH 3기신도시 사업지분 확대 등이 이뤄지면 큰 재정 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수행 가능하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 새로운 주거모델인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 5명과 함께 수원 광고에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 의원들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급압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절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용자이자 인화,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체 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 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하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여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신도시 사업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주면 기본주택,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누구나 편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고 충분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기원 의원은 “국토위에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얼마 전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중산층도 공공주택에 살게 한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 투자 대상으로 보거나

꼭 집을 사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핵심지역에 누구나 살 수 있고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이 공급된다면 그런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기본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지난달 25일 개관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13일 기준 3,260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 실물모형, 가상현실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새로운 공공주택이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최근수/기자

[칼럼] 대한민국의 척추, 50대의 현주소

1960년대 출생한 50대는 여러모로 고난과 행운이 겹쳐지는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은 모르지만 전후 세대로서 어느 정도 가난도 겪어보고 이른바 조국 근대화 시대라는 과도기적 변화의 중심에 서는가 하면 군사독재와 민주화의 정점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세대였다.

부모의 은혜와 자식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최소한 동방예의지국의 정점에서 대한민국의 척추 역할을 하며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퇴직을 앞둔 책임자 위치에 있는 세대다.

물론 그 이전에 출생한 70대와 세대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아랫세대의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연령층이라 볼 수 있다.

문화적·문명적 차이는 물론 과거처럼 무조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나 주식에도 적절히 투자할 줄 알아야 하고 공무원들 사귀어 토지정보도 빼내고 비트코인도 채굴할 줄 알아야 한다.

얼차나 버스에서도 피울 수 있었던 담배를 이제는 버스정류장 근처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피울 수 없음도 알아야 하고 고등학생이 뺨히 쳐다보고 피우도 모른 채 지나갈 줄도 알아야 한다.

월급봉투는 아닐지라도 급여 타는 날이면 친구들에게 술도 한잔 살 수 있었던 경제적 권한도 통째로 온라인 계좌로 넘어가 돈 구경도 못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줄 알아야 한다.

자녀들이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각기 제 방으로 들어가고 아침이면 우유 한잔에 후다닥 나가는 바람에 밥상머리 교육은 고사하고 요즘 어찌냐고 묻는 것조차 사치인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사직서를 품에 넣고 참아가며 다닌 회사도 구조조정 들어오거나 명예퇴직 압력 들어오면 적당히 치킨집이나 차리고 잘하면 편의점이라도 차릴 돈이 생기지만 어찌나 대충 안 받고 차리기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대한민국 50대의 현주소다.

국민 교육 현장과 독립 선언문을 줄줄 외우고 솜파폭질과 지분불이를 해보았던 세대였고, 아침이면 동네 길에 빗자루 질도 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길 줄 알았던 파스한 인상의 세대였다.

그러나, 요즘 만난 코로나19란 질병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50대의 현실은 참으로 어디에도 말할 수도 말해서도 안 되는 위치다. 아픈가 50대, 아파도 티도 내지 못하는 가장의 권위와 든든한 해마 하는 마음은 소수 매출로 나타난다.

최근 나타나는 뉴스나 통계의 일부를 보더라도 척추의 병든 증상은 제아무리 다리 역할을 하는 30대·40대가 날고 기어도 이를 지탱하지 못한다. 50대 자영업자가 한 달새 11만 명이냐 폐업했다는 소식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하던 일이 닦 튀겨서 팔아 먹고 사는 이른바 생산보다는 유통

이었다. 막상 질병이 모든 환경을 달 리해 버리니 갈 곳이 공사장이냐 일용직에 그친다. 반대로 이들이 농사를 지었다면 대과 심다가 마나리나 시금치도 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단순한 유통보다 본질적인 생산과 과를 가져올 수 있는 1차 산업이었다면 지금처럼 속수무책 무너지진 않았을 것이다. 공사장은 쉬운가. 안 되면 노가다라도 하지, 전만에 말씀이다.

그 흔한 노가다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점령해서 할 수도 없 거니와 한다고 치더라도 안 하던 일로 인한 서툰에 며칠 못하고 밀려나기 마련이다. 한때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대거 한국의 3D시장을 점령할 때 두 손 놓고 설마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라도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겨우 버티며 자영업에 몰려 들었던 50대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50대 자영업자는 159만7000명에서 11만 1000여명이나 줄었다. 이들은 어디로 갈까. 나름 성실히 살았던 50대에 갈 곳이 사라졌다.

대면 서비스업 종사 비중이 높은 탓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선별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휴·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대로 제도전을 지원한다는 20만 명에게 제도전 장려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정작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외면하고 다시 창업해야 50만원 준다? 장난하는가. 50만원으로 창업을 하라는 방침은 대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일까.

다 그렇다 치고 보궐선거가 다가오니 준다면 19조 5천억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일자리가 없다하니 기껏 만든 일자리가 90만 개 중 59만개가 월 27만원 용돈 일자리였다. 한마디로 숫자 장난이다. 이제 그 장난은 50대를 향한다.

오도기도 못하는 50대 이후 퇴직자 1만7000명에게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이라며 또 탁상심정의 일면을 보여준다. 금융권 퇴직자가 소상공인 금융 상담을 하는 등 경력자의 사회공헌 일자리에 시간당 2000원짜리에 하루 8시간 근무해도 2만5000원을 받는다.

일은 하고 월급은 받는데 소꿉놀이 수준이다. 고등학생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돈으로 50대 가장이 뭘 할 수 있을까. 겨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돈은 가난한 자에게 더 없는 절망조차 못하게 하는 호구지책이다.

1회용 단발성 일자리가 정부의 정책이라면 이는 아니 함만 못하다. 여기서 더 가면 척추가 부러진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 50대는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경륜과 연륜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이다.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애대우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박암/김근식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 ↑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는 ↓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19% 가량 오른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세종이 4억 2300만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3억 8000만원, 경기 2억 800만원, 대구 1억 7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로 집계됐다.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p 제고돼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 6000만원이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 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 5000호가 해당한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 5000호, 서울은 16.0%인 41만 3000호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

또 일시적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분납 제도를 도입,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 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요건에 해당되는 1주택자는 감면혜택도 커진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된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돼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돼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000원 이하 될 수 있다.

현재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월 11만 1293원인데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11만 2994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공제 금액이 확대되면 11만 1071원 수준으로 낮아져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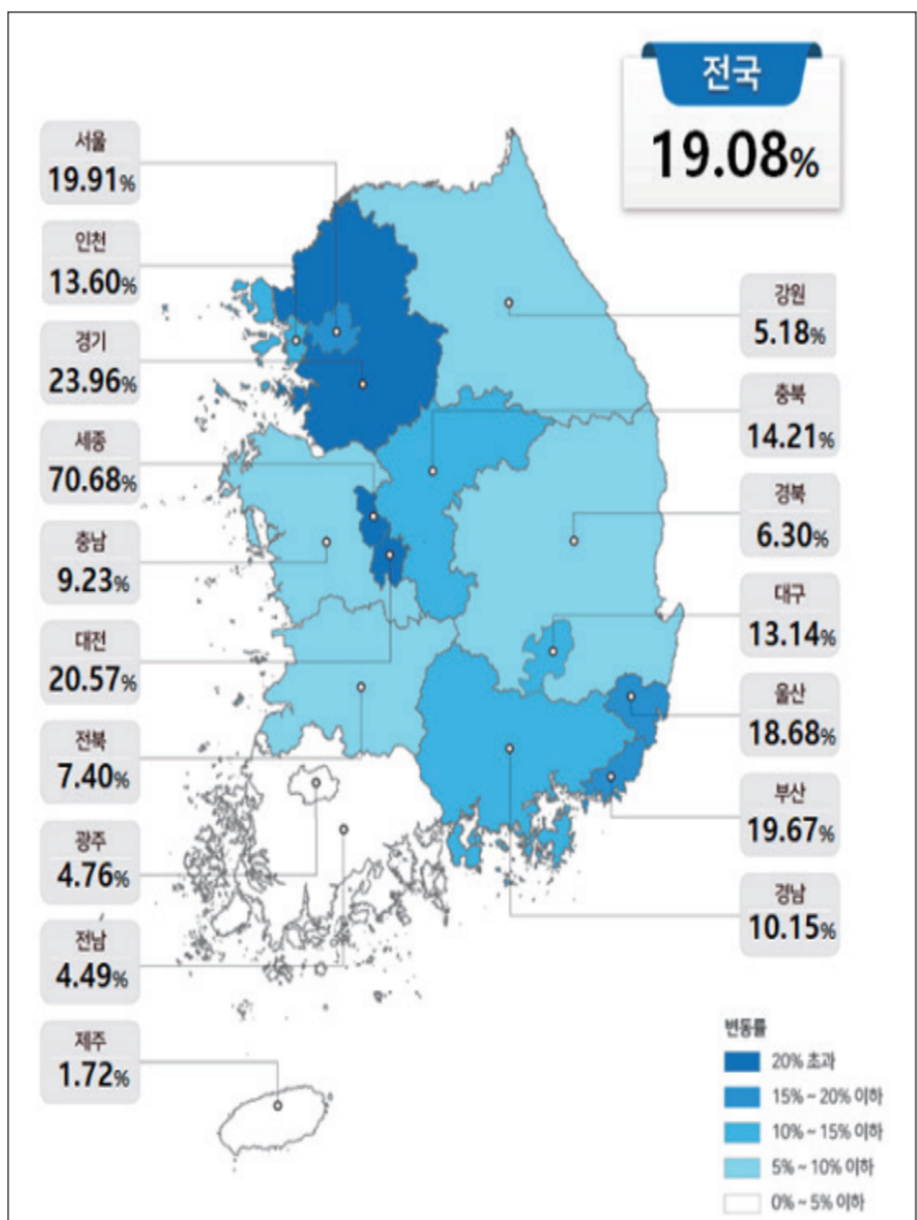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재산세 과표 5억 4000만원, 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이 15억원(시세 약 20억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될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신규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약 1만 8000명(0.1%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 대부분이 고령층인 여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보험료 변동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 상관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돼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보험료 감면도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은 복지수급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전체 노인, 중증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새로 설정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가 받는 기초연금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가 받는 장애인연금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지급받는 비율이 70%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공시가격 변동을 감안, 각 제도별 수급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383만호보다 2.7% 늘어난 1420만 5000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음달 29일에는 공시가격 결정·공시의 산정근거가 되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가격참고자료를 포함한 기초자료가 공개된다.

이는 지난해 세종시에서 시범 공개됐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동희/기자

본사사령
2021년 3월 16일 경기도청
최근수

본사사령
2021년 3월 15일 의왕
원종균

김기덕 서울시의원, DMC역 상부 쇼핑몰도 연내 착공되어야

김기덕 의원, 신속한 행정절차로 인허가 해 상암쇼핑몰과 함께 연내 착공 가져와야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은 DMC역 상부 쇼핑몰 인허가 사업제안과 수색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11일 부의장실에서 서울시 관련부서인 서북권사업과장, 산업거점조성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마포구의회 신종갑, 최은하 의원, 서부발전연합회, 상암비대위, 지역주민대표등과 함께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주민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7년여 끌어온 DMC 상암쇼핑몰이 지난 1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되기까지 노력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지역주민을 대표해 고마움을 전한다"며 인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롯데에서 상암DMC복합쇼핑몰과 연결되는 "DMC역 상부에 개발될 쇼핑몰도 사업자인 롯데 측 관계자에 의하면 3월 중에 은평구에 사업 제안서를 내고 주부 부서인 서울시 서북권사업과에 제출되면 서울시 도시관리과를 통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와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뛰고 있다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신속한 사전검토와 행정절차를 통해 상암쇼핑몰과 연계해 조기에 착공, 준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속히 인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서북권사업과가 1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연남동-성산동-상암동-향동천-구룡사거리로 이어지는 사업인 만큼 "하늘·노을공원과 한 축을 이루며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기덕 의원은 20년째 사업자를 못 찾고 있는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교통유발금 면제, 교통대책 등 과감한 조치로 복합비즈니스센터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안한 상암동과 수색역을 연결하는 통행로와 무빙워크 설치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검토를 요청했고 4월 중순께 김기덕 의원이 직접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 지역주민 대표 등과 함께 현장에서 현안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기로 협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공직제나 주민들께서 저를 월드컵시의원, 지하철시의원, 쇼핑몰시의원으로 지칭한다"며 "그동안 상암동은 그야말로 난지도의 설움에서 상전벽해, 천지개벽을 이룬 지역이라며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색역세권 및 상암동 일대 개발사업은 서북권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대규모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상암동이 서울의 관문도시로서 DMC와 연계한 미디어시티 기능을 바탕으로 4차산업 선도하는 대표적인 글로벌도시로 거듭 태어나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주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상암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로는 약 2,500명 고용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시·구 세수 증대와 DMC 미디어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해외 관광객의 소비, 관광 및 문화체험의 거점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고 지역 내 중심상 권으로 발전함은 물론 광역상권 형성으로 강남 지역에 비해서 소의 받아왔던 서북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광수기자



김병욱 의원,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수여하는 '소비자권익증진상' 수상

착오승금방지법과 ISA법 발의, 공매도 제도개선 등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실적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수여 하는 '소비자권익증진 상'을 수상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 관련 입법으로 대표발의 5건과 공동발의 19건을 했다.

특히 '착오승금방지법',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법', '사회적 금융 지원법', '집단지식 식재료 품질 관리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핀테크 발달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착오 승금과 같은 부작용이 함께 늘고 있는 현재, 신기술에 맞춘 법과 제도로 예금 소

비자를 보호하도록 힘썼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증시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관철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자본 시장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바 있다.

또한 대기 질 악화 등으로 실내 체육·문화시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 소비자 및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 복합 문화·체육센터 준공을 위한 예산확보도 심사기관의 호평을 받았다.

'소비자권익증진 상'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었다.

국회의원의 소비자 관련 예산 지원 소

비자 관련 정책지원과 홍보, 소비자단체와의 소통내역 등을 평가내용으로 삼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주권 실현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매년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활동을 평가한다.

김병욱 의원은 "모든 국민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과 정보가 풍부한 기업에 비해 소비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실질적인 생활형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만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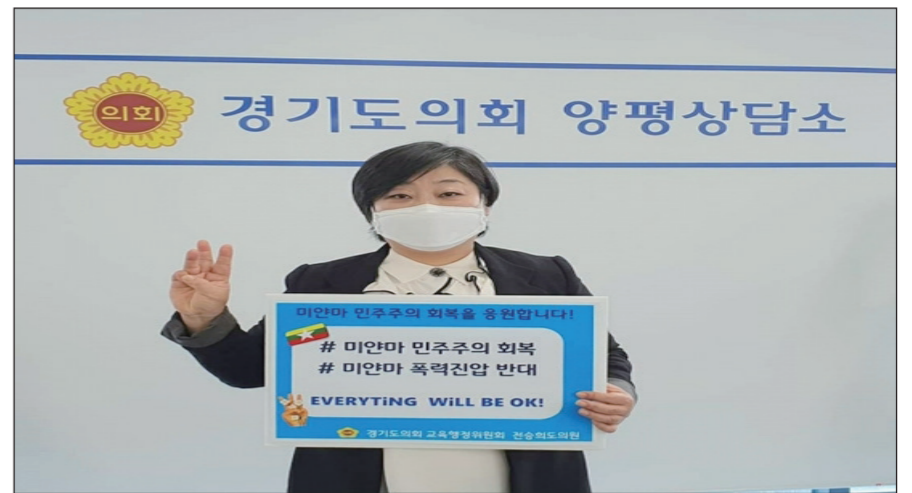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 의원,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 챌린지' 참여

"제2의 광주되지 않길. 미안마 국민들의 고귀한 투쟁 적극 지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미안마 군부 쿠데타와 국민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안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달 1일 미안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선포한 비상사태에 불복해 쿠데타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안마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진행 중인 것으로 참여자들은 '#미안마_민주주의_회복', '#미안마_폭력진압_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전승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인 민병덕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목받아 챌린지를 이어나갔으며 "반 쿠데타 시위 참여 중 사망한 19세 여성이 입고 있던 티셔츠의 문구인



'Everything will be OK'는 이제 미안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며 "광주혁명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미안마 국민들의 고귀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큰 희생 없이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

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전승희 의원은 다음 참여주자로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장승희 구리시의회 의원을 지목했다.

최근수기자

인천광역시 건설교통위원회, '수산기술지원센터'현장방문 실시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현안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수산기술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31억3천600만원을 투입, 옛 용진군청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지난해 12월 현 청사로 이전했다.

규모는 연면적 약 1천㎡, 지상 3층 건물에 어업인 교육장과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실을 갖추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센터 내 2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조명호 수산자원연구소

장으로부터 청사신축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이날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실을 방문해 국내산 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한 연구과정 견학과 함께 거래이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준수 건설교통위원장은 "훌륭한 어업인의 교육과 함께 안전한 식탁 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 수산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이 지대적"이라며 자

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또 "최근 마스크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물고기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이 수산물 섭취를 꺼리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위생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해협인증과 어장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수산물이력제 등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남기자

장현국 의장, 여성정책 입안활동 통해 '여권 신장' 기여해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여권 신장을 위해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입안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16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고 실천과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여성정책 개발과 여권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열정을 확인했다"며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쟁점을 논의하며 양성평등 사

회로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교육은 김미리 회장과 최경자 수석부회장, 고은정·김미숙 부회장 등 여성 도의원과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여성의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

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1강 비대면 시대 줌 활용방법'과 '2강 경기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쟁점' 등이 다뤄졌다.

최근수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성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차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이용섭 시장 “미안마 국민에 강력한 연대·지지 보낸다”

“미안마 민주주의·헌정질서 회복에 국내·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우리 광주는 ‘또 다른 광주’로 불리고 있는 미안마 국민들에게 강력한 연대와 지지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5일 오전 일가정양림 지원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광주3·15의거 주역, 3·15 및 4·19단체 회원, 지역 기관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99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록영상 상영, 경과보고 선언문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쿠테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흡사 우리 민주시민들이 걸어왔던 길이기도 하다”며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민심은 곧 천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시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미안마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 마산의거보다 3시간 앞서 일어난 광주 3·15의거는 이후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으며 5·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며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밑거름이 됐다”며 “광주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마산 3·15의거와 함께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돼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는 이날을 기념하고 민주열사와 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금남로공원에

‘3·15의거 표지석’을 설치할 예정이며 광주역사공원 내에 ‘4·19혁명 기념탑’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1960년 4·19혁명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4·19혁명 주역들이 광주를 찾아 기념식에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장 입구에서는 ‘3·15의거 사진 전시회’가 열렸으며 광주3·15의거 발생 현장인 광주 금남로공원에서 당시 시위 시간인 12시45분에 ‘국 민주주의 장송 데모 시위’를 재현하며 다류 영화 형식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3·15의거의 숭고한 의미를 알렸다.

이 밖에도 광주3·15의거를 기념하며 주요 간선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전 가정에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김덕윤/기자

유천호 강화군수, 주요사업지 현장점검

“차질없는 사업마무리로 민선 7기 성과 체감하는 해가 될 것”

유천호 강화군수는 15일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관내 주요 사업지를 방문해 공사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유 군수는 군청 기획행정복지국장, 도시건설개발국장 등과 함께 교통 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 해안순환도로 4-1공구 사업 및 국공장 조성 사업지를 방문했다.

교통 화개산 관광자원화사업은 민선7기 최대 공약사항으로 화개산 일원 202,070㎡에 사업비 382억원을 투입해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5색 테마 화개정원 모노레일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북한 조망이 가능한 교통도의 지리적 특색과 인근 화개산성, 연산군 유배지, 교통항교 등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특화 단지로 개발된다.

특히 아시아 최고를 자랑하는 산 정상에 스카이워크 형 전망대는 본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지난 5월 착공해 현재 공정을 10%로 산 정상까지 진입도구가 연결돼 전망대 기초 공사가 추진 중이다. 인천시 최초의 지방정원인 5색

테마 화개정원은 지난 7월 착공해 공정을 45%를 보이며 분수가 포함된 물의 정원 공사와 테마 정원을 진흥 중에 있다.

또한 480대 주차가 가능한 화개산 주차장은 공정을 10%로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안순환도로 4-1공구 사업은 159억원을 투입해 교통대교 입구에서 창후 선착장까지 2.0km를 강화군에서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해안순환도로 4공구는 황정리부터 인화리까지로 이 중 창후리부터 인화리까지가 4-1공구에 해당된다.

4공구는 지난 2011년 인천시에서 실시계획용역에 착수했지만, 문화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군은 우선 사업이 가능한 4-1공구에 대해 실시계획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및 분공사 등을 직접 시행하고자 적극적으로 인천시와 협의

해 지난해 7월 공사에 착공했다. 현재 토공, 배수공 및 연약지반처리 시공 중에 있으며 계획 공정을 대비 150% 초과 달성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공장 조성사업은 강화읍 용정리 87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착공해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을 70%를 보이고 있다.

4개의 과녁을 갖추고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한옥 건축물은 전국 규모 시설을 자랑한다.

본 사업은 호국과 궁국의 전통을 이어온 강화군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군민의 심신수양과 체력증진은 물론 전국적인 국공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올해는 민선 7기 주요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약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순창군수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정인선 회장 순창군청 찾아 감사패 전달

황숙주 순창군수가 소프트테니스 발전과 저변확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근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정인선 회장이 순창군청을 방문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 회장은 “매년 크고 작은 전국단위 소프트테니스대회 10여개를 개최해 주셨으며 전지훈련장을 무상으로 개방하고 참가팀에게는 행·재정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으로 선수단의 실력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 황숙주 순창군수와 순창군회의, 순창군민들을 만나 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 찾아 뵈게 됐다”고 말했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을 방문해 주신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정인선 회장님과 주인식 부회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주신 이 감사패는 저 뿐만 아니라 순창군민들이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소프트테니스의 발전과 지역의 엘리트 선수, 동호인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철/기자

한범덕 청주시장, ‘벚꽃 개화기 맞아 철저한 방역’주문

한범덕 청주시장이 15일 오전 8시 40분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다가오는 벚꽃 개화기를 맞아 철저한 방역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다가오는 벚꽃 개화기를 맞아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쪽 방향 통행, 거리 두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현 방역 대응 체계를 2주 더 연장하게 됐는데,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에 긴장을 풀지 않고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



리 지역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선제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코로나19의 영향과 각 부서가 분산된 사무실에 위치해 있

어 각 부서가 대면 회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 부서 간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 줌 프로그램 등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서춘수 함양군수, 대봉산 휴양밸리 개장 차질없는 준비 당부

15일간부회의서 4월 차질없는 개장 준비 만전, 엑스포 성공개최·산불 등 현안업무 철저

서춘수 함양군수가 간부회의에서 오는 4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대봉산휴양밸리의 차질없는 준비에 만전을 당부했다.

함양군은 3월 15일 오전 서춘수 군수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서별 추진할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 부서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

이날 서춘수 군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개장이 연기되어 온 대봉산휴양밸리가 드디어 4월 초 개장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 4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철저한 개장 준비를 통해 2021함양산삼향노

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는 엑스포 제2행사장으로 활용되며 국내 최장의 산악형 모노레일과 쥘라인, 산림욕장, 숙박·캠핑시설 등 자연 속에서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시설들이 갖춰져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서 군수는 “인근 지자체에서 목욕탕 이용 및 가족모임 등을 통해 급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되는 등 모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할 때”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산불예방, 국·도비 확보, 예산 조기집행, 인구늘리기, 엑스포 개최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춘수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본격적인 봄이 다가오면서 나들이 등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며 “한 순간의 방심으로 코로나 19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강영훈/기자

허성무 창원시장, 정세균 국무총리 만나 핵심 현안 집중 건의

제61주년 기념식 통해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제정 건의

창원시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3·15의거 61주년을 기념하며 3·15 관련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창원-대구 철도물류망 구축,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중도위 사업인정 동의 등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 폭넓은 발표행정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시정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현안 해결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5의거 제61주년을 맞아, 허성무 창원시장 등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하고 민주묘지에 헌화와 참배를 했다.

이날 허 시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시조인 3·15의거의 위상 정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건의하며 과소평가된 3·15의거의 국가기념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사각지에 놓인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창원-대구 철도물류망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창원시에서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이다.

허 시장은 대구산업선이 창원산업선과 연결되어야만 창원-대구간 철도물류축이 형성된다는 이는 향후 도로 교통의 한계에서 벗어나 철도 중심 수송의 기반 마련으로 국가 기간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산업선의 창원산업선 연결을 통한 영남권 순환철도망의 완성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창원산업선과 진해산업선이 반영될 경우, 앞으로 조성될 진해산업선 철도 중심의 물류 수송 용량을 확보해 유라시아 대륙으로까지 이어지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중도위 사업인정 동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북리 및 심리 일원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가족 휴양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에

대해 언급했다.

더욱이, 지역발전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된 데 대한 지역민의 상실감이 매우 크며 중도위 의견에 따라 공익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용지 비율과 사유지 종면적 취득률을 대폭 높이는 한편 주민 편의 시설도 추가로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숙박시설, 골프장 등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사유로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부동의 판정을 통보받은 바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민의 숙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현안들이 더욱 속도가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 등 전방위적으로 공유하고 협의하며 소통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영경/기자

문정우 금산군수, 지역균형 뉴딜 공모 준비 철저 지시

문정우 금산군수는 15일간부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금산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민선7기가 시작되고 각 부서별, 분야별로 노력해 온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군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참신한 우수사업에 대한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마무리된 2021년 군민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있었다”며 “담당자들은 처리계획을 건의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백제 왕도문화, 온라인과 현장에서 가족단위 주말 탐방 및 체험

백제왕성 몽촌토성·풍납동토성을 집에서 현장에서 가족과 함께 탐방 체험

한성백제박물관은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이 주말에 즐길 수 있는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2종을 3월 20일부터 운영한다.

가족교육은 한성백제박물관의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예전에는 박물관 교육실에서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주 토요일에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진행하며 가족별로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 즐길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초등학생 포함 가족 대상의 주말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교육재 키트는 사전 배송 후 실시간 원격 교육으로 운영한다.

교육재 집에서 직접 받을 수 있어 현장 교육 못지않은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교육 주제는 '영원히 사는 곳, 무덤'이며 선사부터 백제까지 무덤의 종류와 변화를 알아보고 백제 유물 및 유적 카드를 이용한 가랜드 만들기를 체험한다.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3.2.부터 6.14까지이다.

참가비는 없으며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마이크와 웹캠이 포함된 컴퓨터 등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

교육인원은 회당 20가족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은 3.20.부터 6.26.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오후 3시과 15:30~16:30로 일2회 진행한다.

3월 20일부터 주말에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2천원 백제의 역사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주말문화유산탐방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탐방 코스는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출발해 백제 왕성이었던 풍납동토성과 몽촌토성을 각각 걸어서 탐방하는 것이며 풍납동토성은 풍납백제문화공원에서 마무리하고 몽촌

토성은 백제집자리전시관에서 마무리한다.

운영기간은 3.20.부터 6.5.까지 매주 토요일 10~12시에 유적지별로 나누어 진행한다.

교육인원은 유적지별로 최대 20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없다.

참가자는 수신기용 개인 이어폰과 걷기 편한 복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전시실 탐방으로 으로 대신하는데 강사의 깊이 있는 설명으로 출토유물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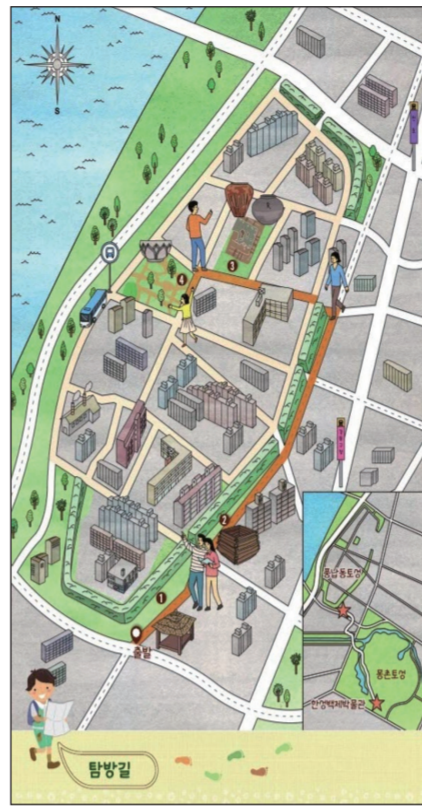
모든 프로그램은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 또는 서울시공공서비스에 약을 통해 예약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인천시,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보조금 지원

4월 9일까지 신청접수, 세대 당 최대 200만원 확대 시행

인천광역시시는 시민의 연료비 부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급배관 설치 준공년도 신청건만 지원하던 것을 준공년도 포함 3년간으로 신청을 연장해 지원하고 지원금도 전년도 100만원에서 세대 당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사업비로 시비 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 중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으로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이며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세대들은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신청서와 함께 도시가스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4월 9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중 '2021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추가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로 그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가스관 매설을 못했거나,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시민들의 시설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편리한 도시가스를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관악구 아동권리 모니터단 50명 모집

3월 15일부터 26일까지...아동권리 모니터단 단원 50명 모집

관악구가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관악구 아동권리 모니터단'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아동권리 모니터단은 지난해 3월 인증된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의 의견을 구청에 반영, 아동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다.

모집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8세 ~ 만 18세의 아동 또는 관악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단원으로 위촉되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단 활동을 펼치게 되며 아동권리 탐색 및 실천 아동권리 캠페인 활동과정 UCC 제작 등 아동의 시각에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선발된 단원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되고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 실적도 함께 인정되며 연간 우수 활동 단원에게 구청장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니터단 지원을 원하는 아동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아동 스스로 지역사회의 정책과 사업을 모니터링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주체적으로 구청

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아동권리 모니터단에 관심 있는 아동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이 차

별받지 않는 더불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구로구, 가리봉 도시재생 주민 공모 실시

구로구가 가리봉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로 나눠 실시된다.

'일반공모'는 축제, 앤커시설 운영을 위한 활동 등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가리봉 도시재생 구역 내 주민 5인 이상으로 이뤄진 팀이다.

기획공모는 '특성화 사업'과 '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구성된다.

'특성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우마길 문화거리 조성 등 지역재생 활동을 지원한다.

'공간 활성화 사업'은 가리봉 도시재생 앤커시설에 한해 해당 공간 활성화, 주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지닌 주민 5인 이상이 만든 팀이라면 등록 주소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구는 단체별로 일반공모에 최대 500만원, 특성화 사업에 최대

900만원, 공간 활성화 사업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모임은 2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가리봉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는 서면심사, 사업선정위원회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5월 중 구청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성/기자

연수구, 지구단위계획 위치기반 시각화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한번 클릭, 모바일간단 확인 가능·이용자 편의성 증대

연수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필지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위치기반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소와 도시개발구역 3개소의 건축물 규제사항, 지형도면 등 관련 자료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 받아 개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복잡한 방식에서 쉬운 방식으로 탈바꿈해 올해 5월까지 기반자료

정비와 웹페이지 테스트를 완료하고 6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수구청 홈페이지 내 '백문이불여일지도'와 연계해 지구단위 테마 클릭 후 해당번지 검색 또는 필지를 클릭하면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접속용 웹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도시계획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강서협치를 대표할 얼굴을 찾습니다

강서협치 비전과 목표를 표현할 수 있는 BI 공모

서울 강서구가 주민과 함께 강서협치를 대표할 상징 찾기에 나섰다.

구는 '협치로 실현하는 조화로운 강서'를 비전으로 강서협치 BI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민들은 무엇을 떠올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확인해 강서협치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구성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친근하고 일상적인 협치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주제는 '협치를 통한 조화로운 구정발전'과 '협치를 통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등 강서협치의 비전과 목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BI다.

강서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으며 1인당 2점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응모신청서와 BI를 제출하면 된

다.

출품 규격은 A4 사이즈 1매 이내로 300dpi 이상이어야 한다.

또, BI에는 '강서', '협치'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BI 콘셉트와 이미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소식광장-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전문가로 구성된 BI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징성, 디자인,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의 작품을 선정하며 그 결과를 6월 중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도 할 예정이다.

선정작 중 최우수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우수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구는 선정된 BI를 강서협치 홈페이지, 협치 이벤트, 인쇄물 등 각종 협치 홍보와 협치 문화 확산에 적

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강서협치 제2기 출범에 맞춰 '협치로 실현하는 조화로운 강서'라는 비전에 어울리는 BI를 주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그

려 주셨으면 좋겠다"며 "협치 구정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인천시,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보조금 지원

4월 9일까지 신청접수, 세대 당 최대 200만원 확대 시행

인천광역시시는 시민의 연료비 부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급배관 설치 준공년도 신청건만 지원하던 것을 준공년도 포함 3년간으로 신청을 연장해 지원하고 지원금도 전년도 100만원에서 세대 당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사업비로 시비 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 중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으로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이며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세대들은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신청서와 함께 도시가스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4월 9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

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중 '2021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추가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로 그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가스관 매설을 못했거나,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시민들의 시설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편리한 도시가스를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서울시, 여성공예창업가에 최대 200만원 성장지원금... '공예창창' 참가자모집

클라우드펀딩 시 지원, 홍보 연계, 여성공예창업가 간 네트워킹 자리 마련 등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공예창업가들이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영, 상품 개발, 판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여성공예가들의 창작과 창업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복합문화플랫폼 서울여성공예센터에서 '2021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공예창창'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여성공예센터에서는 여성공예가들의 창업활동지원을 위해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777프로젝트'를 201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공예창창'으로 사업명 및 운영방향을 보완해 성장단계 여성공예창업가를 지원해 오고 있다.

'공예창창'은 사업성장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도약기의 여성공예창업가를 발굴해 창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진출의 계기를 만드는 사업이다.

'2021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공예창창'은 공예기반 사업아 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1년 이상 7년 미만인 서울 소재 여성공예창업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수의 2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면접심사로 25인을 최종 선발한다.

25개 선정기업에게는 경영, 개발, 판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클라우드펀딩 운영 시 밀어주기를 통해 매칭금을 지원하고 공예창창 오리엔테이션 및 성과공유회를 통해 여성공예창업가 간 네트워킹을 독려할 예정이다.

성장지원금은 창업활동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기업들이 '공예창창'에 관심 갖고 지원하는 계기가 된다.

2020년에는 '쉬어로'의 서해리 대표와 '조슬린의 우아한 공방'의 백미선 대표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배출했으며 성장지원금 활용 및 홍보 연계, 펀딩 지원과정을 통해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2021 여성공예창업가 성장지원사업 공예창창'의 모집기간은 오는 3월 23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여성공예센터 홈페이지 공고

사항확인 후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약약서 각 1부씩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창업 조차기, 성장기에는 상품 개발, 판로 확보 등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성공예창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예창창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용산구, '흙으로 피운 꽃' 도예전 개최

'흙으로 피운 꽃'... 용산공예관에서 만나요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인 흙을 이용해 만드는 도자공예는 그 어떤 공예보다 오래, 또 깊이 인간의 삶에 자리해 왔다.

12세기 독자적인 삼각기법을 개발, 정점을 이뤘던 한국 도자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잠시 쇠퇴했으나 전통을 계승, 창조성을 발휘하는 현대 도자공예가들에 의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가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흙으로 피운 꽃' 한국현대도예가회 초대전을 운영한다.

전시장소는 용산공예관 4층 전시실이며 용산공예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관람이 가능하다.

참여작가는 한국현대도예가회 임원·회원 29명이며 분청병, 해맞이, 토혼, 희망 주자, 선의 흐름 등 '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무료. 전시기간 중 매주 토·일요일 2회에 걸쳐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시 공공예약 사이트에서 최대 4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국현대도예가회는 1978년 창립 이래 35년간 우리나라 도자 예술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기회원전은 19회, 특별전은 13회, 세미나는 18회에 이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현대 한국도예의 대표적 그룹인 한국현대도예가회와 함께 특별전을 개최한다"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 용산공예관에서 흙으로 피운 아름다운 도자공예 작품들을 만나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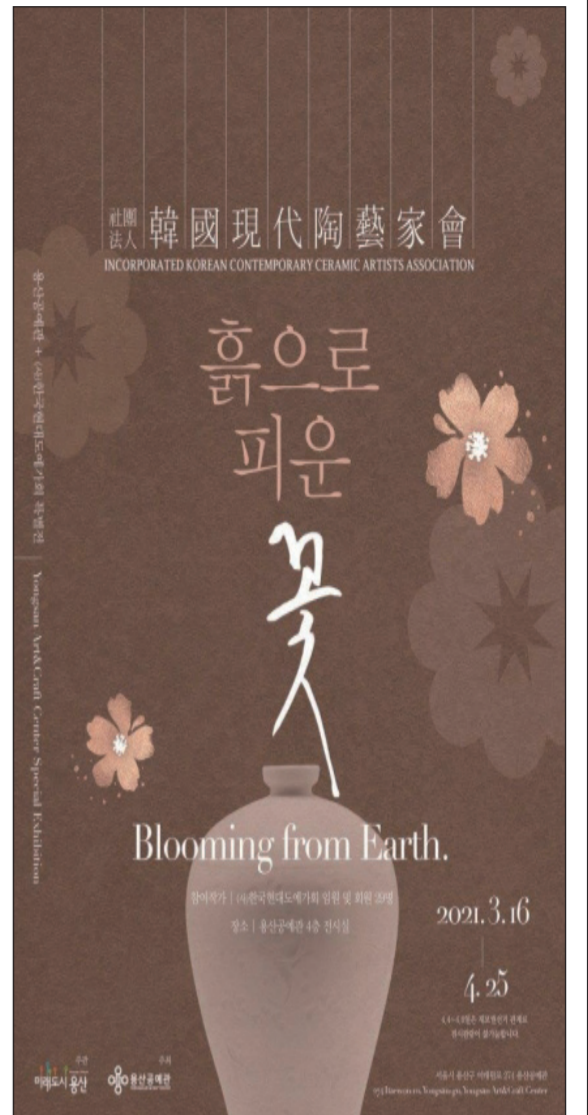
용산공예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했다.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 규모에 공예품 판매장, 도자기·한복 체험장, 공예배움터와 공방, 전시실을 갖췄으며 시민 대상 공예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강좌 수강생은 28일까지 모집한다.

개설 강좌로는 세라믹 모델 만들기, 한지 무드등과 팔각 꽃과반 만들기, 한지 필통과 육각 연필꽂이 만들기, 민화 시계 만들기 등이 있다. 수업은 4~5월 3~6회씩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2만 4000원~12만원 수준이다.

최만식/기자



배움과 심이 펼쳐지는 행복한 서대문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마을 속 어린이와 청소년 배움 활동 지원 위해 '누구나 프로젝트' 공모

서대문구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을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쉽고 배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누구나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혁신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 단체, 기관이 참여해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없애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즐겁게 배우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교육도시 서대문'을 만들고자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도 민·관·학이 함께 모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기획 실행하고 또 지원할지 관심을 모은다.

공모는 '마을학교형'과 '마을교육동아리형' 두 분야로 진행된다.

'마을학교형'은 사업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4차산업혁명, 문화예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각지대 학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

'마을교육동아리형'은 사업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영리목적이나 단순 취미활동의 동아리만 아니면 학습동아리, 연구동아리 등 다양한 교육 동아리 활동을 기획해 응모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9일 오후 6시까지며 구비서류를 이메일이나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신규 응모자와 참여 경험은 있지만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전 상담을 진행한다.

신규 응모자는 응모 전에 사전 상담을 꼭 거쳐야 한다.

상담은 서대문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접수 기간 중 진행하며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다.

구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의 현실성, 사업운영능력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지원대상을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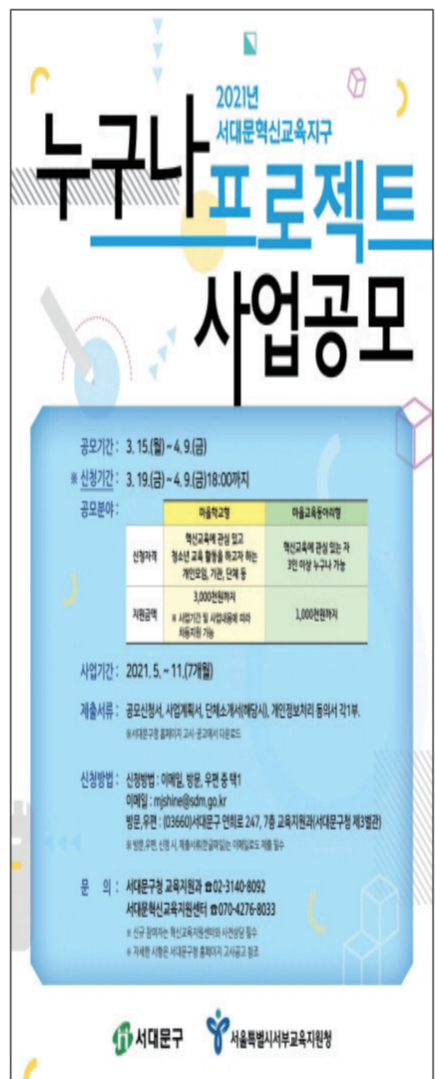
또 조건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한다.

코로나 상황 지속에 대비해 응모시 대면·비대면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

선정 후 사업 추진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공모로 마을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발굴돼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 가까운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배움과 심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상순/기자



용진군 "용진자연" 봄나물 기획전

인천시 용진군은 신선한 제철 상품 판매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용진군 대표 농수특산물 쇼핑몰 "용진자연"에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봄철맞이 햇살 가득 봄나물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쇼핑몰 "용진자연"은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용진군 7개면에서 생산되는 맛과 품질이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봄나물 기획전에서는 용진군의 깨끗하고 맑은 자연 속에서 해풍을 받고 자란 고사리, 생 표고버섯, 부지갱이, 눈개승마 등 다양한 봄나물이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판매되며 배송료도 무료다.

주문은 용진자연 홈페이지 뿐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주문도 가

능하다.

용진자연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해 입맛을 돋우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진군 관내에서 생산된 봄나물을 많은 분들이 맛보시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들이 청정 용진군의 농수특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중구, 문체부 주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 신청

세계인이 다시 찾는 스마트 명동관광특구 조성

서울 중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1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글로벌 쇼핑메카 스마트 명동관광특구'란 주제로 응모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민관협력에 통해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관광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관광 전 목적지 결정부터 실제 관광활동과 관광 이후 활동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이 융합된 개인별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안에 3개 후보 지자체를 선정할 후 국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후보 지자체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스마트기술을 시연한다.

문체부는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국비 35억원을 지원한다.

중구는 연간 1500만명의 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6년 연속 선정된 세계 최고 MICE 도시 서울의 핵심 관광지인 명동을 최첨단 스마트관광도시로 발돋움해 도시가치를 높이고 관광수익을 늘리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가 응모하는 '글로벌 쇼핑메

카 스마트 명동관광특구'는 명동관광특구 내에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달 8일 해인금액글로벌을 주관사로 하고 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위드 코로나에 알맞은 비대면 관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여행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태"라며 "전세계가 다시 찾는 글로벌 쇼핑메카 스마트 명동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캐릭터 광이·진이 스티커, 네이버 OGQ마켓에 무료 출시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광진구가 구 SNS 캐릭터 '광이·진이'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온라인 용 스티커를 제작해 네이버 OGQ마켓에 무료로 출시했다.

네이버 OGQ마켓이란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스티커·음원 등 콘텐츠를 공유·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구매 시 네이버 블로그, 카페, 포스트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 온라인 채널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구 캐릭터가 온라인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네이버 OGQ마켓에 콘텐츠를 출시했다.

더불어 광이·진이 캐릭터의 주민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티커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에 출시된 스티커는 열정 넘치는 광이·진이 사랑 넘치는 광이·진이 2종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스티커 24개씩 총 48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스티커는 구 SNS 콘텐츠 디자인과 홍보 웹툰 제작을 맡고 있는 공공·뉴딜일자리 청년작가들이 직접 제작해 더욱 눈길을

끈다.

구매를 원하는 주민은 네이버 OGQ마켓에 접속해 '광이·진이'를 검색하면 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버전의 스티커를 제작해 무료로 출시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광이·진이 일러스트와 바탕화면 이미지 등을 구청 홈페이지 내 광진소개-우리구소개-광이·진이 게시판에서 제공하고 있

다.

김선갑 구청장은 "우리 구 캐릭터 광이·진은 전국단위 공모전을 통해 주민의 손에서 탄생했으며 웹툰과 일러스트 등 콘텐츠 제작에도 청년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캐릭터 스티커에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리며 광이·진이와 함께 더욱 친근하게 구청 소식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용인시 기흥구, 봄 맞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

등산로·자전거도로 정비 및 개선 공사 등 대대적으로 진행

용인시 기흥구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봄 맞이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나섰다.

먼저 구는 봄을 맞아 나들이객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석성산 등산로 정비 및 기흥역~강남대역·신갈천·영덕동 자전거도로로 개선공사를 추진했다.

석성산 등산로는 오는 12월까지 남은 원주목계단을 데크계단으로 교체하고 안전난간은 보수해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흥역~강남대역 구간의 자전거도로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음 달까지 투수블럭을 설치하고 신갈천 자전거도로는 인도를 분리하는 공사를 오는 5월까지 진행한다.

영덕동 자전거도로는 오는 6월까지 파손된 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한다.

또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급식시설 위생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을 진행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급경사지 42개소, 입야 3천㎡ 이상의 관내 49개 대형공사장, 교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구조적 안정상태, 주변시설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도 다음달까지 진행한다.

관내 11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

후화된 시설물을 개·보수한다.

여기에 주민들이 신선하고 따스한 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청사 외벽, 도로시설물, 버스승강장 청소를 진행하고 교복 48그루, 관목 3천255그루도 식재한다.

이정표 기흥구청장은 “대대적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평택시, 사회적 배려대상 자기주도 꿈 공모 사업 '도드림' 참여 청소년 모집

취약계층 청소년 자기개발지원, 너의 꿈을 응원해

평택시 위탁기관인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는 '사회적 배려 청소년 자기주도 꿈 공모 사업 '도드림'에 참여할 청소년 참가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9세 ~ 만19세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으로 서류접수 및 심사를 통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18년 시작된 '꿈 공모 사업 다드림'은 주위환경 및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자기개발의 기회가 부족했던 청소년에게 청소년이 스스로 계획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균형있는 성장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에는 진로탐색, 예체능 문화활동, 기타 활동의 3개 영역에서 20명의 꿈 공모 활동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교육활동, 예체능활동, 탐방활동, 그 외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꿈 공모 활동 참가를 희망하는 사회적 배려 청소년이라면 활동 계획을 세우고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김남주/기자

의정부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다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달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관,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의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304개 공공기관 중 평가 성적 상위 10% 기관에 주어지는 '가' 등급을 달성한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장관 수상의 영예와 함께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최만식/기자



하남시, 도서관에서 '시요일'을 즐겨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시큐레이션 서비스 '시요일' 운영

하남시는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시큐레이션 서비스 '시요일'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큐레이션은 미술관에서 기획자들이 우수한 작품을 뽑아 전시하는 큐레이션에서 확장된 단어로 '시요일'은 4만 5천여 편의 시 콘텐츠를 선별·조합·분류해 원하는 작품을 골라주는 온라인 서비스다.

시요일은 상황에 맞는 시를 엄선해 소개하는 '테마별 추천 시' 시인이 직접 낭송하는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시인 낭송' 시 구절을 SNS에 공유하는 'SNS 공유'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하남시립도서관 정회원은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시요일' 앱을 설치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하남시립도서관 회원 ID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의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차미화 도서관정책과장은 “감수성을 높여 주는 양질의 시 콘텐츠를 통

해 시민들이 지친 마음을 달래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독서문화 육구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종균/기자

광명소방서,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새마을시장 소방통로 확보훈련 참여

광명소방서(서장 박정훈)는 16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통행로 확보훈련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대운도 의원은 소방차량에 탑승하여 소방관과 함께 실제 출동 훈련을 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새마을시장 내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신속한 진입을 위해 ▲시장 내 무질서한 좌판 설치 제거 ▲소방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양보 ▲협소한 도로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요소 제거 등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합동훈련 종료 후 시장상인 중심의 자율적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소방서와 시장상인회가 함께 안전점검체크리스트를 통한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소방·전기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보이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화재예방 캠페인과 함께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하였다. 정대운도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소방관들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순희/기자



김포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으로 달린다

이달 말부터 김포페이 결제 가능... 정식 서비스 예정

김포시가 오는 3월말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과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지난 가을부터 공공배달 앱 론칭을 추진해 왔다.

배달특급은 전국 최초 민관 협력 디지털 플랫폼으로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이용할지 관심을 모아왔다.

김포는 사전 가맹 목표치의 81%에 달하는 1,377개소의 소상공인들이 이미 가입을 마치는 등 공공배달 앱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

배달특급은 김포시의 지역화폐 '김포페이'와 연계한 다양한 소비자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충전 때 10% 인센티브에 더해 신규회원 할인 혜택, 배달특급 결제 시 5% 추가 할인쿠폰도 제공할 예정이다.

배달특급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김포페이 결제는 오는 3월 정식 론칭 때부터 가능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상생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많은 분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역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안양

안양시, 1인 가구 청년 월세 20만원까지 지원

무주택 청년층이 월세 걱정을 덜게 됐다. 안양시가 청년신용유이자 지원에 이어 늘어나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층에 대해 매달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 주거안정을 꾀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주거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 10시부터 4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인 본인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이면 해당한다.

이중 본인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면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이하 및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하야 하고 거주하는 건물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아래면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이거나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인 경우는 대상에 빠진다.

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4월 중에 75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은 5월부터 시작된다.

세부적인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이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월 20만원 지원은 목돈 마련이 힘든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층의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며 많은 신청을 권장했다.



원종균기자

광주시, 탄벌A지구 등 4개소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주민 공람

광주시는 탄벌A지구 등 4개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계획에 대해 주민열람·공고를 재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시는 탄벌A지구 등 4개소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입안 및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했으나 2018년도 5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계획 수립이 되지 않으면 만 3년이 지난 시점에 실효가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지정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재입안 및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했다. 탄벌A지구 등 4개소는 최근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광역교통인 경강선으로 유동인구 증가 및 급격한 개발 압력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용지의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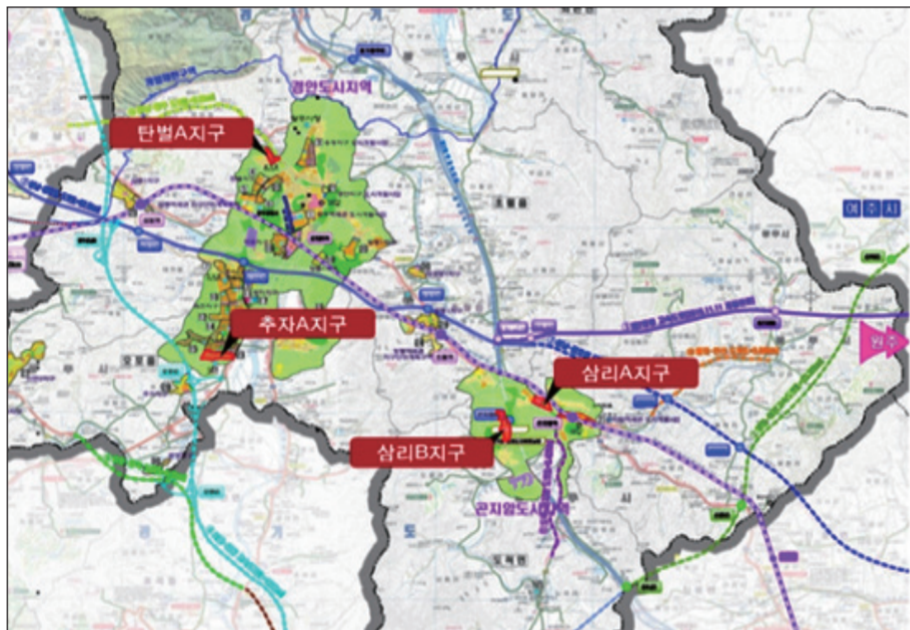
이번에 재 실시한 주민열람 공고에는 탄벌A지구 등 4개소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기반시설 없이 우후죽순으로 주택, 공장, 창고 등이 입지되고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지역 확대를 통한 도로 등 기

반시설 계획과 용도지역 상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계획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인접토지와 공동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권장용도 건축, 건축한계선, 공개공지확보, 주차장확보 통한 건축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 계획이

포함돼 토지의 가치상승 효과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민열람·공고기간은 오는 25일 까지로 오프옴·온라인·탄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윤기자

오산시 보건소 오산천 '오늘은 클린워킹'챌린지 실시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일석이조 챌린지

오산시는 쓰레기 줍기 활동을 통해 환경정비와 건강을 챙기는 '오늘은 클린워킹'을 오는 3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클린워킹이란 'cleaning'과 'walking'의 줄임말로 운동과 환경보호의 의미를 더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란 뜻으로 걷기 좋은 생태하천 오산천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클린워킹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핸드폰 어플 '워크온'에서 '오산시'커뮤니티 중 '오늘의 산책'에 가입해 22일 참가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쓰레기봉투, 집게, 물 등 준비물을 챙겨야 하며 걷기 중 나온 쓰레기는 각자 집에서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인증방법은 기간 중 워크온 앱을 이용해 4,000보 이상 걷고 오산천변에 설치된 걷기 안내판 4곳 중 2곳을 선정해 쓰레기 줍는 준비물과 함께 사진을 찍어 '오늘의 산책'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클린워킹을 인증을 완료한 시민에게는 친환경제품을 증정하며 인스타·페이스북 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을 올린 시민에게는 추가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동훈 보건소장은 " '오늘은 클린워킹'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활동이다"며 "쾌적한 오산천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 챌린지에 참여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주민이 만드는 생기발랄 오순도순 영양만들기 출발

영양군 도시재생뉴딜 주민제안공모사업 선정 12개 팀 사업 진행 시작

영양군은 2021 도시재생뉴딜 주민 제안공모사업에 선정된 12개 팀의 사업이 3월 16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작되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지난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접수되어 서류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8일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12개 팀의 주민들이 진행한다.

이번 영양군 도시재생뉴딜 주민제안공모사업, '생기발랄 오순도순 영양만들기 프로젝트 I'은 취미소양교육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전시회' 사업들과 '마을경관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목공예 체험교실 II', '천연염색 및 소품만들기', '캔아트 체험교실', '컬트&자수공방', '천아트 교육', '캘리그래피 교육' 등 6개 사업은 일반주민들의 참가신청을 받아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영양읍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등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3월 16일부터 8회에서 9회까지 매주 요일별로 진행되며 교육을 통해 완성된 주민들의 작품들을 전시해 나눔과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영상만들기 및 시사회 사업 역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영상촬영 및 편집 교육을 받은



후 영양군 도시재생사업을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마을경관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영양읍 서부 1리 주민들이 진행하는 '어르신놀이교실 및 우편함 만들기'와 '마을학교 및 문패만들기', 서부 2리에서는 '할머니 경로당 화단가꾸기'와 '어르신놀이교실 및 문패만들기'가 진행된다.

이 사업들은 3월부터 4월까지 서부 1리와 2리 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이 참여해 마을기반 공동체 활성화 및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영양고 영양여고 등 영양군 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황용천길 가꾸기 II' 역시 4월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해 제안하고 직접 실행하는 주민제안공모사업은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가장 많은 12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점이 매우 고무적이며 이 사업들이 단순히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동아리 조직 그리고 영양군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경산시, 철도유휴부지 사업 대상지 선정

경산시가 2020년에 신청한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이 국토교통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향후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및 경산시 도시재생사업 완료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도유휴부지 대상사업은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친화적 공간조성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제안을 신청받아 선정한다.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은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를 이용해 공원, 주차장, 워터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경산시는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약 3.2여원의 부지매입비를 절감했다.

사업 대상지인 옥산동 123-1번지 철도부지에는 8,970㎡의 부지에 주차장, 화장실,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



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여가활동 및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지역주민 및 경산역 이용객들의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산시는 앞으로도 "공모 사업이나 제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들 생활에 편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경북 교육정책

'2021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모집으로 소통 창구 활성화 기대

경북교육청은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교육수요자 중심 소통 창구 활성화를 위해 '2021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니터단은 경북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운영한다.

도내 학교당 1~2명을 모집해 학부모 1,00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경북 교육에 관심 있는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생을 둔 학부모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

모니터링, 학교 및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창출,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채널 등의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은 모니터단에 주요 교육정책을 안내·홍보하고 분기별로 전반적인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23개 교육지원청별 모니터단 926명을 구성해 경북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만족도와 2020 경북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등 모니터단에 참여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 안한 바 있다.

박종환 정책기획관은 "모니터단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창구가 되기를 바라며 미래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부모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류석/대기자



합천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로 피어나는 천년의 향기'작품설치



합천군은 2020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공모에 한국미협 합천지부 작가팀 '예술로 피어나는 천년의 향기'가 선정돼 지난해 말부터 작업을 진행해 이번에 합천읍 대야성 벽면에 작품설치를 완료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합천군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단을 통해 합천읍 대야성 벽면

작품설치형으로 사업방향을 결정했다.

합천미술협회 작가팀은 총37명의 작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구상은 추진단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천읍 대야성 안쪽의 방치된 양 옹벽에 부조형식의 조형 작품들을 설치해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LED조명을 설치해 야간에 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작품 추진배경은 신라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정신적 울타리였던 대야성 주변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를 진행해 화랑도 정신을 기반으로 합천의 밝은 미래 vision을 제시하며 합천군의 역사성과 상징적 의미를 조형작품으로 랜드마크를 제작해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이다.

대야성 서쪽옹벽은 '천년의 꿈'이라는 주제로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상징으로 선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4군자를 배경으로 호국사상과 충효사상을 이어받고 예술로 재현되는 상징적 이미지를 조형화한 작품이며대야성 동쪽 옹벽은 '천년의 지혜'라는 주제로 합천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한 문화자원 활용방안과 연계성을 통해 지역만의 문화콘텐츠 육성의 독창성을 살리려 노력 했으며 대야성 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신라장군 죽족의 늠름한 기상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보존하려 하고 있다.

한편 합천미협 작가팀은 겨울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작업 공정별 최소한의 인원으로 각자 역할에 맞춰 작업을 하게 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의견과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작품을 완성하게 되어 지역예술인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강영훈/기자

대구시 창업기업, 스타벤처육성사업으로 스케일업

매년 5개사 선발해 Pre-스타기업, 아기유니콘, IPO까지 단계별 견인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2021 대구스타벤처육성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대구창업허브를 통해 모집한다.

'대구스타벤처육성사업'은 기술창업기업의 발굴에서 성장지원, 성과관리까지 전 주기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구시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사전진단컨설팅 및 맞춤형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구 대표 스타트업업을 육성해 대구시 스타기업, 중소기업벤처부 아기유니콘 등으로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대구형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신청대상은 대구시 창업펀드, 전용펀드, 외부VC로부터 2억원 이상 투자받거나, 기술력을 인정받아 3

억원 이상 보증받은 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 30억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의 지역 소재 기술창업기업이다.

신청기업은 기업별 사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해 진단결과 및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맞춤형패키지 지원은 기술사업화 양산화 지원 성장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이 복수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과 편의성을 확대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DASH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스타벤처 육성을 통해 스타기업과의 연계 및 중소기업부의 K-유니콘 프로젝트로의 진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

라고 전했다.

고성능 진공단열재를 개발·생산하는 에임트(주)의 경우 대구 Pre-스타기업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고 ㈜쓰리아이, ㈜야스트로젠의 경우 중기부 아기유니콘에 선정되는 등 대구시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표 성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창업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창업활동이 성장주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에 스케일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벤처 성장생태계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코로나 블루 힐링 여행지 '성주 안심여행 12선' 으로 떠나보자

성밖숲 한개마을 가야산만물상, 성주호둘레길 등 언택트 관광명소 '인기'

자연, 생태, 힐링 여행지인 성주군이 코로나19로 한겨울 같았던 지친 마음을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호젓하고 안전하게 자연이 주는 풍경에 위로받을 수 있는 언택트 관광지 '성주 안심여행 12선'을 선보인다.

'성주 안심여행 12선'은 타인과 접촉이 최소화되는 비밀집 장소로서 거리두기와 자체 방역이 우수한 장소로 숨겨진 안심여행지로 매력에 있는 곳으로 엄선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가야산을 병풍으로 한 신이 내려준 자연의 선물이 넘쳐나는 성주 안심여행 12선 주요 관광지는 성밖숲 가야산 만물상 가야산 정견도주길 가야산야생화식물성주호둘레길과 무릎구곡 세종대왕자태실 한개마을 회연서원포천계곡과 만귀 정 독용산성 성주역사테마공원 성산동고



분군등이다.

이별한 성주군수는 "희망찬 봄이 오는 일상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힐링할 수 있는 안심여행 12선이 있는 성주의 대

자연속으로 떠나보기를 추천하고 있다" '성주 안심여행 12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봉화군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상담실 연중 운영

봉화군 보건소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질환자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를 위한 상담실을 보건소 2층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의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심뇌혈관질환은 함심증·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과 뇌졸중·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선행질환을 통칭하는 말이다군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조기발견과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질환 관리를 하고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1:1 건강상담과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저검사 및 미세단백뇨검사 쿠폰을 발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홀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들의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 대상자에게 혈압계 대여, 혈당기 및 혈당측정에 필요한 소모품도 무료로 지원한다.

손병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만큼 상담실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창원시, '개발사업 공직자 투기의혹 관련 특별 전수조사' 실시

최근 논란된 토지보상 서류 제출 건, 법령 해석의 차이일 뿐, 상급기관 결정에 따를 것

창원시는 최근 LH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사업 공직자 투기의혹 관련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택지개발, 산단조성, 관광, 공원개발 사업 등 4개 분야 27개 개발사업에 대해 창원시 7급 이상 전 직원과 전·현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5급 이상 공직자와 전·현직 업무 담당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감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했고 15일부터 조사대상 직원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대상 사업 조서와 보상 내역 등 세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투기 의혹 대상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늦어도 4월 중순경 1차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허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가 확인되는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 전반에 대해 별도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시는 사업 진행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산정 기준과 금액이 적절했는지, 감정평가 책정 기준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농지법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백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창원시는 최근 정지도 경남도당과 일부 시의원, 일부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서류 제출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토지보상 서류 제출' 관련 문제는 시의원측에서 서류 제출 요구 근거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시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법령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해석 심의·의결 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시가 이번 논란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개인정보 공개

에 신중한 이유는, 개인정보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그 자체가 공익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기본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이번 논란과 같이 법령과 자문결과에 대한 사전인수식 해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악의적으로 시정을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면 법적인 조치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불법투기의혹을 밝혀서 공익을 실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는 이번 자체 특별 전수조사 및 특정 감사, 공익신고센터의 제보를 통한 의심자를 수사 의뢰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창원시는 공직 사회 투기 의혹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어떤 사소한 의혹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궁영기기자

김해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출하농가 교육 실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농가 육성교육 진행"

김해시는 지난 15일 김해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로컬푸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품질을 향상시켜 믿고 먹을 수 있는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생산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와 신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

다.

로컬푸드의 이해, 직매장 운영 체계 및 출하 시 유의사항과 농산물의 신뢰도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한 PLS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최근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에 맞추어 소비자의 니즈를 알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김해시 관계자는 "최근 관내 중소농가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앞으로 직매장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품목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도 계획 중이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영훈기자

'경남 약용작물 적용 농약' 손쉽게 찾아보세요

안전한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자료로 활용 계획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농약허용 기준강화제도에 대응해 도내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농약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고자 '경남 주요 약용작물 병해충별 적용농약'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란 전체 농산물에 대해 국내·외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0.01ppm은 100t에 1g이 들어있는 수준의 아주 극미량이지만 작물재배 중에 농약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사용을 돕기 위해 경남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약용작물 23종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약용작물별로 병해충, 농약 품목명, 사용적기 및 방법, 안전사용기준

및 물 20l 당 농약 사용량을 알기 쉽게 정리해 약용작물 재배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주요 약용작물 29종에 대한 재배현황과 효능을 수록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약용자원연구소는 이 책자를 안전한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재혁 경남도 농업기술원약용자원연구소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약용작물은 안전성을 주의 깊게 살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소비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책자가 약용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약허용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안전한 고품질 약용작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개소식 가져



안동시는 안동형 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안동대학교에 설치한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의 개소식을 16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개소식에는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해 권순태 안동대총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형동 국회의원,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 권상용 안동과학대 총장, 이대원 안동상공회의소장, 우병현 가톨릭상지대학교 행정지원처장이 함께 한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 전반의 고용 부진으로 실업자 증가와 함께 구직활동이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성장동력 모색을 위해 시·군·구·읍·면·동별 TF 팀을 선제적으로 신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안동형 일자리모형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모

든 준비를 마쳤다.

안동형 일자리 사업은 저출생,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중앙정부 주도 대기업중심의 일자리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해 10년간 1,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역특화자원인 바이오백신 스마트팜농식품소재 문화 관광 창업커뮤니티 시융합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지역기업 수요인력에 대해 지역대학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기업은 안정적인 우수인력 확보로 중소기업이 되고 지역에는 청년들이 정착함으로써, 향후 2030년 인구 30만, 첨단 바이오 산업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안동대학교 내에 안동시와 안동대학교는 공동사업단장, 센터

장, 공무원, 연구원 등 총 12명으로 조직을 구성해 "안동형 일자리 사업단"을 꾸렸다.

사업단은 지역특화사업 분야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소기업과 연계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며 2022년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중점추진해 2030년에 최종 완성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핵심인력 1만여명, 청년벤처 100개, 강소기업 육성 100개, 중견기업 2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이 상생하는 지역혁신일자리모델인 만큼 우수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남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배움의 열기로 지역에 활력을”

지리산 마을대학 신활력 아카데미 진행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 주관하는 지리산 마을대학‘액션그룹’ 조성을 위한 신활력 아카데미가 우리 지역 경제공동체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에게 배움과 협력을 통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지리산 마을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회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 경제공동체‘액션그룹’을 양성하는 신활력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신활력 아카데미는 지난해 9월 개강한 이후 1단계 기초공통 2단계 그룹만들기 3단계 창업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 교육생 142명 중 116명이 1단계 기초공통과정 1, 2기를 수료했고 2단계 그룹만들기과정을 통해 8개 분야 액션그룹 26팀이 조성됐다. 이들은 3단계 창업과정을 거쳐 지역의 맞춤형 공동체로서 지역 수요에 알맞은 활발한 활동들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3월 9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교육은 3단계 창업과정 중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으로 농산물 가공, 조리, 교육, 건축, 관광 등 다양



한 분야의 창업을 도모하는 20여개 팀이 참여한다.

수업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농업인상생플랫폼 1층 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1강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 2강~5강 그룹별 사업계획서 수립 토의, 6~7강 사업계획서 작성, 8강 사업계획서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공통교육 이후에는 그룹별 점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막연하게 구상하고 있던 창업의 꿈을 체계화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실무

를 익히는 등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완성된 사업계획서는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단체 사업 등에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이 끝나면 법인설립 과정으로 이어지며 협동조합 법인화가 완료되면 심층 평가를 통해 창업육성지원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장은,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마을대학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이 더욱 커질 것이며 지역 혁신리더들이 많이 배출되어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가 되는 경제 선순환 체계를 이루내, 남원시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남출기자

전북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에 나서

도내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지원반을 통한 상시 방역으로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15일 24억원을 투입해 공동방제단 46개 반을 편성, 전업농미만 규모로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농가 4,793호와 질병 전파에 취약할 수 있는 가급거대 전통시장 93개소, 밀집 사육지역 8개소에 대해 연중 24회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농가뿐만 아니라 주위 농가 역시 방역정책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 점을 고려해 소규모 농가를 포함해 원천적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해 철저한 소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태우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 스스로도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12월 79건에서 1월 96건, 2월 167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시도 최근 6일간 10건이나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김승일기자



무주군, 배넛소 지원사업 추진한다

희망농가에 암송아지 공급, 무주군 한우 번식기반 확보

무주군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배넛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딧불 한우 기반 조성을 통한 한우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한우 사육기반 확대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비 4억 7,000만원을 투입해 총 100여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우 사육규모 50두 미만의 농가 중 배넛소 입식이 가능한 농가가 대상이며 농가당 10두 이내다.

군은 중축개량 완성도가 높은 송아지 공급으로 밀소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이달 26일까지로 배넛소대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한우 암소 사육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가, 배넛소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고 구

축할 수 있는 농가의 경우 우선 선정된다.

농가는 송아지를 지원받는 날로부터 30개월 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후 6~7개월령 암송아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주군에 상환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배려해 지원할 방침”이며 “한우 사육 기반 확대를 통한 농촌활력 증진과 소득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우기자



특산품 활용 ‘마마레시피’, 한국디자인진흥원상 수상

도시재생 뉴딜 주민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

지역 특산품인‘서동마’와 ‘고구마’를 활용해 만든 ‘마마레시피’가 한국디자인진흥원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따르면 신청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특산품 활용 마마레시피가 최종 성과평가에서 이같이 수상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도시재생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신청사 지역 뉴딜사업을 준비하며 발굴된 주민조직과 함께 레시피 개발 컨설팅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디저트상품 개발을 통해 특화된 디저트와 음료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주민조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개발된 레시피를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공유해 지역을 대표할 특화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신청사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주민모임을 확장시켜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마마레시피’주민모임 김연희 대표는“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여름부터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는데 도

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과 더불어 좋은 결과가 있어서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며 “주민모임과 신청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지역주민의 참여는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저소득층 자활사업, ‘생산·나눔·협동의 공동체’로 내일의 행복에도전

김제시는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부과하고 가구별 종합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제지역 자활사업은‘자활참여자와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일터 만들기’라는 비전과 함께 저소득층의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11개의 사업단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Gateway 교육을 진행하며 150여명의 참여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청년자립도전사업, Gateway 교육사업 등 도농복합형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김제시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으로 사회공헌형 사업 및 6차 산업중심의 사업은 전복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다.

사회공헌형사업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랑을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다시 환원해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김제지역 수급자를 위한 무료수의 제작 및 제공하는 ‘효사랑수의사업단’,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식사와 차를 지원하는 ‘정다운도시락’, ‘노란 커피’사업단, 청소 및 흡연여 서비스 지원 하는 ‘클린업’사업단이 있다.

지역사회내 저소득층의 의식주에

모두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제급여 외에 수의를 지원하고 있는 김제시는,‘효사랑 수의’자활사업단에서 마지막 가시는 길 자식과 같은 마음을 담아 정성껏 제작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급자 사망시에 무료로 전달하고 있다.

‘정다운도시락’사업단은 식당내 맛있는 백반을 중심으로 한 식당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밤상도 풍성하게 책임지고 있으며 ‘노란커피’사업단은 저소득층이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내가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저소득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일상의 기부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가 어려운 가정의 청결을 책임지는 ‘클린업’사업단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 및 서비스하는 6차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희망농부’사업단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해락’사업단에서 가공·판매하고 ‘노란커피’사업단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활용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안심먹거리 제공과 농촌의 맛과 멋을 만끽하며 즐길 거리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사업이 정착하고 안정화 된다면 자활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저소득층 참여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희망농부’사업단에서는 농산물 판매 및 판매를 통해 저소득층 참여자의 소득 증대 및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복권에서 손꼽히는 사업단 중의 하나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지역내 ‘황금코다리’음식점으로 전량 납품하고 있으며 사업단의 주력 품목으로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

기존의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전처리시설을 확충해 재배에서 전처리 유통시스템을 확충한다면 자활참여자들의 일자리 확대 및 매출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김제시에서는 자활사업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처리시설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에서 자력으로 참여자의 최저지급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체로 성장할 경우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해,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업체를 말하며 김제의 경우 상우산업개발, 성 부산업, 희망나르미, 클린세탁 등 4개의 자활기업이 운영 중에 있다.

성우산업개발은 집수리 및 인테리어, 학교 방호 사업을 성부산업은 집수리 및 청소 위생관리용역 사업을 희망나르미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정부양곡 배송사업을 클린세탁 속박업소 시트 등 대용량 세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기본소득 및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 및 탈수급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정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공공복지 서비스”고 말하고 “앞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전문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일반시장으로의 취·창업 및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에서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김제지역자활센터는 16명의 직원들이 각 사업장 관리와 신규사업 발굴 등 업무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활동으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현태기자

순천시, ‘해빙기 일제방역 실시’로 감염병 차단 총력

각종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해빙기 일제 방역 실시

순천시는 해빙기를 맞아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해충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위해 15일 ‘해빙기 일제방역’을 실시한다.

이번 해빙기 방역은 월동모기의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3월에 실시해, 겨우내 월동하는 위생해충과 병원체를 사전에 구제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여름철 성충구제보다 더 효과적이다.

특히 유충구제 방역은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 사전에 해충을 제거하는 방제방법으로 소량의 약품으로도 살충 효과가 높아 산란을 막을 수 있고 유충 1마리 구제는 성충 수백 마리의 방제 효과와 같아 하절기

모기 개체수의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

시는 24개 읍면동 및 자율방역단과 함께 취약지역 838곳, 정화조, 월동모기 주요 서식지 등에 있는 유충을 없앨 방침이며 관내 해충으로 인한 민원발생 다발지역을 중점방역 병행해 사전에 구제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여름철 성충구제보다 더 효과적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해충이 주로 발생하는 축사 주변과 향아리, 화분, 페타이어 등 고인 물 제거, 생활쓰레기 환경개선 등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하은기자



“한전공대 특별법 3월 국회 통과해야”

김영록 지사, 여야 국회의원 대상 전방위 활동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협조를 구했다.

또한 여·야 소관 위원회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강력히 주장해 3월 임시회 통과를 약속받기도 했다. 특히 16일 예정된 국회 산자중기위

소관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1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이학영 산자위원장, 홍익표 산자위 정책위 의장, 송갑석 산자위 간사를 만나 특별법 3월 통과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이어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3월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에도 함께 참여했다.

김 지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융복합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형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신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밸리를 구축하는데 반

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시 도시계획심의회 심의과정에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이 확대되도록 나주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개발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이익 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 3월 임시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와 후속 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시, 한전과 공동 노력하고 있다.

김영안기자

여순10·19-제주4·3 연계 평화·인권 교육에 전라남도의 회도 “적극 지원·협력” 약속

전라남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여수·순천10·19와 제주 4·3을 매개로 연대와 공유의 평화·인권교육에 나선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위원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남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지난 12일 오후 여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유성수 교육위원장 등 전남도위원들이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고 나섰다.

협약식에 참석한 유성수 전라남도의 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전남과 제주 지역의 학교에서 여수·순천10·19 및 제주4·3 평화인권교

육 관련 계기수업과 기념행사, 체험학습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에 지역구를 둔 이광일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의미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두 지역의 평화·인권을 위한 연대가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장은 지속적으로 여수 특별법 제정과 교육청 주관의 여수·순천10·19 관련 교육 활성화를 요구했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이제라도 제주와 전남 교육청이 협약을 맺은 만큼 평화·인권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여수 지역 민병대 전남도위원을 비롯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권 여수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여수·순천10·19와 제주4·3의 연대를 통한 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기원했다.

두 교육청은 이 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여수·순천10·19와 제주4·3을 연계한 평화·인권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 관련 연수와 수학여행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덕윤기자



진도군, 친환경 농업 조성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매년 150t 생산·공급, 농작물 토양 환경 개선과 안전 농산물 생산 기대

진도군이 올해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 유용미생물 제제 150t을 자체 생산해 원예·축산농가 등에 공급한다.

미생물제를 일정한 시설을 이용해 배양한 후 원예·축산농가에서 활용하면 항생제, 화학비료의 사용 절감, 축사 악취저감 효과 등 농축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농작물 토양환경 개선과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은 물론 친환경 농업의 필수 요소로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4,118 농가를 대상으로 광합성균 등 총 78t의 유용미생물을 공급해 농약 등의 사용량이 감소했다.

특히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해 연말 16억원을 투입, 진도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을 통해 실험실, 배양실, 기계실, 저온창고 등 부대시설을 완비했다.

이를 통해 매년 유용미생물 생산과 공급량을 늘리고 있어 농가 만족도와 호응도를 높이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과 배양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양호기자

“겨우내 기다렸다”문학강좌로 봄맞이 할까요?

땅끝순례문학관 4월부터 소설·에세이 쓰기 프로그램 운영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이 봄과 함께 새로운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4월 6일부터 땅끝순례문학관 상주작가인 이원화 소설가와 함께 ‘소설의 감동을 연극으로’ ‘해와 별을 품은 에세이쓰기’ 강좌가 열린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운영하는 ‘소설의 감동을 연극으로’는 지난 2년 동안 운영했던 ‘화요소설모임’을 발전시킨 수업이다.

소설쓰기의 이론과 실재를 배우는 수동적인 수업 방식에서 나아가 소설 속 좋은 문장을 고르고 이를 연극 대본으로 구성해 발표하는 등 소설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해와 별을 품은 에세이쓰기’는 군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운영하며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군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글의 주제 정하기, 문장쓰기의 기초 등 글쓰기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의 글을 엮어 종강 시 수강생 문집도 발간한다.

두 강의 모두 백련재 문학의집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이원화 상주작가가 강사로 나선다.

문학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접수와 관련 문의는 문화예술과 고산문학팀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강의정보는 문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땅끝순례문학관에서는 오는 3월 18일부터 시장작교실과 시조문학교실도 열릴 예정으로 군민들이 참여하는 전문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군민 누구나 문학을 즐기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군 관계자는 “2019년부터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왔다”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그간의 노하우를 덧붙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니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

검색

이차영 괴산군수,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과 '농산물 유통지원체계 마련' 강조

이차영 괴산군수가 15일 PC영상회의로 진행된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 농산물 유통지원체계 마련 사업장별 코로나19 방역현황 점검 등을 주문했다.

이 군수는 "올해 군정운영방향이 가시적 성과 창출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사업,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주민 생활개선과 밀접한 사업들의 추진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괴산읍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괴산읍장이 직접 부서 진행상황과 읍민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진행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다른 면단위 사업도 실과별로 적극적으로

시행해 올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군수는 계절별 농산물 유통지원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이 군수는 "각 시기별로 읍면마다 전체적인 농산물 생산·판매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유통책임관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군에서 농산물 판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군수는 "지난달 말 발생했던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추가 확진자는 없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여전하다"며 "인접지역과의 교류과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내 공장, 공사현



장, 농가로 인근 지자체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경우 관련 부서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체크 할 것"을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서천군, 봄감자 정식기 자체생산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인기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생산 연 2t 생산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조직배양 우량씨감자가 봄 감자 정식기 농가에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직배양 줄기증식으로 생산된 기본종 '소괴경'을 연 2회 상자 재배해 연간 2t 내외의 우량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서천군 감자연구회에 분양해 1차 증식재배로 20t의 씨감자를 확보해 재배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특히 서천군은 '추백' 품종을 조직배양을 통한 2기작용 감자 품종으로 보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생육기간이 짧은 '추백'은 휴면기간이 50~60일로 짧아 재배적기가

넓고 입모율이 좋을 뿐 아니라 조기 수확 시 껍질 벗겨짐이 적으며 10a당 약 2300kg의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

장동완 감자연구회장은 "조직배양 우량씨감자로 생산한 감자는 바이러스 감염율이 낮고 20~30%의 높은 생산량을 보인다.

맛도 좋고 저장기간도 길어 15% 높은 경매가를 형성하는 등 소비자 및 도매상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방주영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 기술팀장은 "조직배양 씨감자는 작물 고유의 특성이 발현되어 상품성과 수량성이 모두 뛰어난 장점이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바이러스검정과 철저한 포장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소질이 좋은 우량씨감자를 공급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대전시 등 4개 시도지사, 충청권 상생발전 위한 행정협의회 개최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등 충청권 동반발전 도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15일 제30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세종시 심심문화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1건의 공동안건과 3건의 협력안건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안건으로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 사업'을 상정했고 협의안건으로 '4차산업기반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탈석탄 금고 등

참'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가 제안한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 사업'이 추진될 경우, 홍성~서늘까지 45분만에 갈 수 있어, 충청권의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건 협의 후, 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가 있었다.

이에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작년 11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에 합의했고 지난주 11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약 체결했

다.

연구용역은 이번 달 19일부터 착수하며 대전세종연구원 용역을 주관하고 충북·충남연구원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로 황해권이 충청권 메가시티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이 '행정수도 완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의 감성산업을 조화롭게 담아 충청권의 백년대계를 그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김정섭 공주시장, "코로나19 치유 위한 등산로 숲세권 조성"

등산 숲길 정비 종합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적극 발굴

김정섭 공주시장이 관내 각 지역에 힐링 공간을 확충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돌보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15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공주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자"며 이 같이 말했다.

시는 올해 신관근린공원과 금학생태공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건강안 학교 숲 조성, 도심속 공원 정비 등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해 녹색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호태산과 연미산, 월성산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명산 숲길을 재정비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트레킹길과 탐방로 치유숲길 등 다양한 종류의 숲길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도심 속 숲세권 조성을 위한 등산 숲길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생활권 인근 주요 등산로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각 등산로마다 노면 정리 안전 난간 설치 나무계단 정비

그늘막 등 휴게쉼터 조성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등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로 집합운동이 어려운 만큼 읍·면·동별 어르신들의 일상 걷기 운동을 돕기 위한 산책로 개발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적극 발굴하고 컨설팅을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잘 돌보는 것이 이 시기 핵심 업무 중 하나"며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힐링 공간 확충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올해 금산군 장학금 신청하세요

금산 사랑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등 8개 종류 구분 접수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은 2021년 장학금 신청접수를 3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장학금은 792명 6억8700만원 규모로 이번 신청 기간에는 11월 선발하는 재능장학금을 제외한 총 8개 종류 장학금에 대해 개인 신청, 학교장 및 단체장 추천을 받는다.

8개 종류 장학금은 금산사랑장학금 다자녀장학금 우수장학금 희망장학금 총장장학금 효장장학금 만재장학금 현숙장학금 등이다.

장학금 개별 신청 기간은 금산사랑장학금 및 다자녀장학금 및 대학생 우수·희망 장학금으로 각자 구분해 신청받으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충, 효, 만재, 현숙 등 4종류 장학금은 4월 14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으로 학교장 및 단체장 추천만 받는다.

금산사랑장학금은 올해 금산군 관내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선발 예정 인원 300명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다자녀장학금은 관내 정규 초·중·고등학교를 처음 입학하는 3자녀 이상 가정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선발 예정 인원 238명에 1인당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40만원, 고등학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우수·희망 장학금은 선발예정인원 77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우수 장학금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관내 중학교 졸업 후 타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도 선발예정인원 66명의 10%인 6명 이내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장학금의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2년 전부터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금산군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금산군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금산사랑장학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신설되는 장학금에 대상자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산군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계룡시,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실시

이·통장연합회원 70여명 대상 교육... 자살예방 효과 기대

계룡시 보건소는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계룡시 이·통장연합회'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명사랑 지킴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문지기'라는 뜻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생명사랑 지킴이가 될 수 있으며 지킴이는 주변 자살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계룡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킴이의 역할은 크게 보기·듣기·말하기의 3단계로 구성되며 보기를 통해 지킴이 주변의 자살위험군에 대해 인지하고 듣기를 통해 자살위험성에 대해 경청하며 말하기를 통해 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에 연계를 하는 등의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시에서는 관련 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배부하고 생명사랑 지킴이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해 더욱 완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지킴이로부터 전달 받은 자살위험 대상자를 전문기관에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극단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지킴이-보호자로 이어지는 삼각 보호체계를 구축해 자살 위험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최홍목 시장은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안정망 구축 및 자살예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관, 단체, 개인 등 각계각층에서 생명사랑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킴이를 더욱 양성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계룡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인공지능·블록체인 분야 글로벌 리더 키운다

10월 15일까지 기본·심화·비즈니스모델 과정별 상시 모집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테크노파크, 고려대와 협력해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분야 인재양성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11월까지 디지털뉴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2021년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과정별 교육생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ICT 인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및 개발자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총 22억 6,000만원을 투입, 인공지능·블록체인 전문 인력 36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교육에서는 7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총 81명의 교육 수요생을 배출해 취·창업으로 충청권역 23건을 연계했으며 팀 프로젝트를 통한 비대면 교육성과 학술대회를 운영해 시상식도 개최한 바 있다.

올해 교육과정은 기본, 심화, 비즈니스모델 단계별로 구성되며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만18세 이상 세종시 거주·제작·재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교육 장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학1관으로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기본과정 2개, 고급과정 3개, 비즈니스모델과정 1개, 블록체인이 고급과정 2개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다정동 LH임대상가에 교육장을 마련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모든 교육과정에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생이 직접 미니 프로젝트를 만들어 수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 종료 시 제출된 프로젝트 중 우수작을 뽑아 연말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디지털뉴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계 인공지능 확산 및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세종테크노파크가 협력해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청년들의 취·창업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종시가 글로벌 디지털 인재 양성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홍천 가리산 레포츠파크, 손님맞이 준비에 분주

플라잉짚 와이어로프 전체 7구간 969m 교체 완료

익스트림 어드벤처 스포츠를 대표하는 홍천 가리산 레포츠파크가 2021년 운영을 시작한다.

3월 15일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플라잉짚 전체 7개 구간 969m에 달하는 와이어로프에 대한 교체를 최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가리산 레포츠파크는 일주일간의 플라잉짚 테스트 과정 등의 점검을 거쳐 오는 3월 18일 개장할 예정이다.

플라잉 짚은 올해 11월 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단,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군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의 와이어로프 비파괴검사를 통해 확인된 마모상태를 바탕으로 7개 구간의 와이어로프 교체를 완료했다"며 "가리산 속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플라잉 짚을 다시 안전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 가리산 레포츠파크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산 숲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체험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다



재로운 레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개념 친환경경쾌저인 포레스트 어드벤처를 비롯해 플라잉 짚, 경찰·군 훈련 시스템과 동일한 규격의 GRP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서바이벌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길이 696m, 7개 구간으로 구성된 가리산 플라잉 짚은 동력 없이 탑승자의 무게 및 낙차에 따

른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변환을 통해 빠른 속력으로 이동을 체험하는 시설로 방문객들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나무와 지주대 사이에 와이어를 설치하고 탑승자와 연결된 간단한 트롤리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활강하는 하늘을 나는 비행을 체험할 수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다.

이동원/기자

강릉역~강릉올림픽파크 간 터널 올해 4월 착공

강릉역 역세권 개발과 올림픽 유산 활성화 기대

강릉시는 교통2공원 부근에 가좌로와 화부산로 간을 연결하는 '교통2공원 터널'을 만든다.

이 터널은 폭 20.65m, 길이 305m의 보도를 포함한 4차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최초 도심 구간 연결 터널로 총 사업비는 230억원이다.

오는 4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관련 인허가 진행 중이다.

이 터널 조성 사업은 교통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터널 포함 공원시설을 민간사업

자가 조성해 강릉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원 내 산책로 정비와 쉼터, 화목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속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며 문화·스포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중인 강릉올림픽파크와 강릉역 역세권 개발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정선군, 국내외 아리랑 교류 거점화 위한 정선아리랑의 날 지정 추진

정선군은 아리랑의 원조인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국내·외 아리랑 교류의 거점화를 위해 "정선아리랑의 날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던 정선아리랑이 지난 1971년 11월 16일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군에서는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인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전승·보존을 위해 "정선아리랑의 날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정선아리랑의 날 지정을 위

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비롯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의회 의결 등 조례공포 및 시행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에서는 정선아리랑의 날이 지정되면 기념식과 함께 매년 열리고 있는 정선아리랑제를 국내외 아리랑 및 국민통합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할 국가적인 축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선아리랑이 국내는 물론 세계속 아리랑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선택은 넓히고 역량은 키우는 중학교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 확대

중학교 '생각 속 역량 속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 책 발간

강원도교육청은 15일 중학교 학생들의 교과 선택은 넓히고 역량을 키우는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은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주제 17차시 이상을 구성하며 중학교 자유학년, 연계학기, 융합수업, 주제통합 수업 등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전문적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1학년 사회 교과와 연계한 주제선택 수업에 참여한 서희지 학생은 "실생활, 청소년과 관련된 토론주제를 공부하고 수업에 참여하면서 발표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며 "무엇을 더 해보고 싶은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깊게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을 학생들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성장했는지 꼼꼼히 소개하는 '생각 속 역량 속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 책을 발간했다.

이를 통해 교과서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교사 각각의 색깔이 묻어나는 9개의 수업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책 집필에 참여했던 최의선교사는 "과학, 기술, 공학 사이의 과학수업 '나도 Maker' 수업을 설계해 운영했다"며 "학생들은 과학적인 원리와 코딩을 배우고 3D 프린터를 활용해 직접 드론, 자동차, 비행기를 제작하는 수업을 통해 과학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섭 수업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추천사에서 "학생들의 관심사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주제들을 잘 엮어서 교육과정과 수업 디자인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책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을 위한 꼼꼼한 가이드북"이라고 했다.

최만식/기자



2021년 869억 투입, '공공-민간 부문 1만여개 일자리 창출 행정력 집중'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1년 일자리대책 연간계획'을 공시하고 2021년 한해 시비 869억원을 투입해 1만 7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시정(市政)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청년 친화적 취창업 생태계 구축 등 4대 핵심축을 중심으로 1만 7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민선 7기 2021년도 목표인 고용률 67.4% (만15세~만64세)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일자리 기본방향은 일자리 중심 시정운영 시민행복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 일자리 성장 동력을 위한 기반마련 청년 친화적 취창업 생태계 구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142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문별로 보면 총 10,646개(직접 일자리창출 6,168명, 직업능력개발 훈련 366명, 일자리센터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 3,760명, 창업지원 84건, 일자리 인프라 7건, 기타 일자리 창출 277명)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량기업의 적극 유치로 120개의 민간일자리도 함께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올해 동해시 성장을 주도할 일자리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동해문화관광재단 운영, 도재비골 스카이블리 운영, 무릉지구 폐석장 문화재생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사업전반의 전·후방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훈련과 기능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청·장년들의

취·창업 활성화를 기를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지난 1월 19일 개소한 청년공간 '열림'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촉진 및 취·창업 연계지원, 역량개발을 통한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시민친화형 보육기반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우수한 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지원하고 청년(예비)창업자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청년창업자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 등 청년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 등 신산업의 핵심인 '4차산업 로봇·드론 지역특화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로봇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로봇올림픽 아드 유치를 통해 청소년의 과학 마인드 향상과 신성장 동력 산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감동양주
신성장·새지평

함께하는 감동 양주

NEW & NEW

새로운 도약, 신성장 활력도시

양주시

행복나눔재단도 연합회 저소득 어린이를 위한 마스크 3000장 기탁

(사)행복나눔재단도연합회가 15일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펄택시 안중음에 어린이용 마스크 3천장을 기부했다.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안중음씨도연합회 관장 성민석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응원하고 돕기 위해 기부하게 됐으며 마스크가 면역력

이 낮은 어린이들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장 읍장은 “3월 개학시기에 맞추어 어려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정성을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안산시, 오애니 권민준 대표로부터 마스크 4천583개 기탁 받아



안산시는 15일 오애니에서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사용될 예정인 마스크 4천583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애니는 K-방역으로 마스크 제조와 더불어 엘리베이터용 버튼 살균기에 이르기까지 사업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로 지난 1월에는 대성일렉에서 개발된 UV-C Type의 LED 살균기의 성장성과 기대치를 높이 평가해 국내 총판을 맡아 진행 하고 있다. 이날 기탁 받은 후원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아동

복지시설에 배분될 예정이다. 권민준 대표는 “장기간의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따뜻함을 나누어 주어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정부기자

WK뉴딜국민그룹, 광양시민에 마스크 50만 장 기탁

광양시에 1억원 상당 덴탈마스크 50만 장 전달로 나눔 실천



광양시는 지난 12일 WK뉴딜국민 그룹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감염 예방을 위해 1억원 상당의 덴탈 마스크 50만 장을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WK뉴딜국민그룹은 금융업과 무역업 등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전국 200여 개 공장에서 마스크를 인수해 수출·유통하는 전문 유통업체로 마스크 10장을 수출하면 1장을 기부한다는 10+1 철학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기탁식은 정현복 광양시장과 김철현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사무처장, 박항진 WK뉴딜국민그룹 총재, 채관병 WK뉴딜국민그룹 호남지부 물류기획단장, 박광덕 WK뉴딜국민그룹 호남지부 대외물류협력 단장, 정우진 코리아밸브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부 아세안무역 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탁된 마스크는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정 기탁됐으며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 등 광양시민에게 전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항진 WK뉴딜국민그룹 총재는 “코로나19 극복을 목표로 마스크를 무상으로 전달했다”며 “앞으로 광양시 주민복지와, 보건소 등에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귀중한 마스크를 기탁해 주신 WK뉴딜국민 그룹 박항진 총재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광양시민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해 사용하

조기석기자

성남산업진흥원, '스마트시티 성남을 위한 시민 서포터즈' 위촉식 개최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의 홍보 역할을 담당할 '스마트시티 성남을 위한 시민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성남을 위한 시민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선발됐으며 주부, 학생, 직장인 등 6명으로 성남 시민으로 구성됐다. 구성된 서포터즈는 시민 아이디어 모집기간인 3월 말까지 성남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ICT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각종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성남산업진흥원은 2017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을 통해 시민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ICT기술을 매칭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지원해왔으며 2020년까지 교통, 주차, 복지, 환경분야의 11개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

인 리빙랩 개최가 어려워지자 시민의 온라인 참여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됐다. 접수된 시민의 아이디어는 심사와 기업매칭을 통해 성남시에서 실증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이다. 실증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시상금이 예정되어 있으며 총 상금 250만원이 걸린 '스마트시티 성남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는 3월 31일까지 성남에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류해필 원장은 "시민의 아이디어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기업은 실증 레퍼런스를 확보함으로써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민 서포터즈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성남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성용기자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영천경마공원 현장 방문

영천경마공원 조기 조성에 박차

지난 14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영천경마공원추진 실무팀과 함께 제4경마공원 현장 방문해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경북도의원, 조영제 영천시의회장 및 시의원, 경상북도 관계자 등과 영천경마공원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2월말 취입 후 곧바로 영천경마공원 현장을 찾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인 관람대와 경주로가 들어설 우벌지 일대, 주진입로 주변 가옥철거 대상지, 복측 진입로 현장 등을 차례로 둘러 보았다.

이날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영천경마공원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경마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영천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완공예정인 영천경마공원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대 1,452,813㎡ [44만평 규모]부지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3,650여억원이 투입된다. 주요시설로는 경주로 관람대,

경주시, 관광정책보좌관에 박종희 前 동국대학교 교수 임명

관광마케팅 분야 전문지식·경험 바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 기대



경주시는 지난 2일 박종희 前 동국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를 관광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종희 보좌관은 1955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위싱턴 주립대학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학 석사와 마케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동국대학교 문화관광산업연구소장과 학교기업 경주힐링여행사 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2023년 3월 1일까지 2년으로 관광마케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희 보좌관은 “타 지역에서 찾

아 오는 관광객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경주, 쉽이 있는 경주, 천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경주, 미래를 지향해 서슴없이 변화하는 경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너넹한 경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광산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 분야를 바탕으로 기탄없는 정책제안과 자문 역할을 수행해 경주시의 관광 발전, 특히 산내 공동체마을 조성 등 사업추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반식기자



마사, 동물병원 등 경마 필수시설 뿐만 아니라 루지존, 힐링승마원, 수변공원, 야생화 정원, 피크닉가든, 가족캠핑장 등 지역민의 힐링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조성된

다. 향후 시민들의 문화와 레저를 위한 공간 제공으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한반식기자

인천 중구,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천 중구는 2020년 하반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구정 발전 및 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최우수상 → 농수산과 신현수, 우수상 → 미래전략실 신현연, 건축허가과 박미순, 장려상에 → 재무과 김신민, 일자리경제과 강명원이다. 신현수 주무관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21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에 참여, 10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삼목항 어항시설 확충 및 어민쉼터 조성으로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과 한전 지중화 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했다. 강명원 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국·시비 214억원을 확보했으며 인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카드 발급주체에 제한받지 않는 '인천e음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해 지역상권 기반시설 확충 및 소상공인 경제활력 증진에 이바지했다.

이번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는 총 19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다. 1차 실무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7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인천 중구 인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 선정 우수공무원은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장기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향후 구는 선정된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널리 알리며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인성 구정장은 “공무원이 관행을 벗어나 다각적이고 폭넓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구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지름길”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발굴해 타의 모범이 되도록 노고를 치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지역미술 브랜드화 집중"

"예향의 고장인 전남의 미술을 브랜드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한국 미술사의 중요한 대가들을 배출한 곳으로 그들의 예술세계도 해외에 꼭 알리고 싶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 초대 관장을 맡은 이지호 관장은 15일 이 지역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도립미술관의 운영 구상을 이같이 설명했다.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예술계와 협업하겠다는 도립미술관 운영전략이다.

광양에 들어서는 전남도립미술관은 광양읍 옛 광양역사 1만1천5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졌다.

전남의 예술과 철학이 담긴 다양한 미술 작품을 선보여 지역의 관광 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도 단위 공공미술관으로는 처음으로 문을 여는 만큼 전남도립미술관을 맡은 이 관장에 대한 지역 예술계의 기대도 크고 이 관장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과 대전 시립미술관장, 이응노미술관장을 역임한 이 관장의 다양한 경험은 이 같은 바람을 실현하게 해 줄 자산이다.

이 관장은 "대전은 과학도시였기 때문에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시를 많이 했다"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을 할 때는 한국미술의 세계화·국제화가 가장 큰 업무여서 그런 전시를 많이 했다"고 소개했다.

대전 이응노미술관 관장으로서 이응노 작품 개인전을 프랑스 파리 퐁피두 센터에서 여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예향의 고장 전남에는 김환기, 오지호, 송경자, 소치, 의재, 남승 등 너무나 많은 중요한 대가들이 있다"며 "그들의 예술세계를 국내외에 알리고 이를 전남의 예술로 브랜드화해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개관하는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전시도 전남 미술의 세계화를 위한 전시 기획에 초점을 맞췄다.

이 관장은 "국내·외 다양한 작가



김영안/기자

와 작품을 통한 교류로 전남 미술이 국제 미술사적 맥락에서 나아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도민들에게도 미술이 어렵고 난해한 것이 아닌, 쉽고 재밌게 다가설 수 있는 보편적인 취미·여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밀리의 서재-브런치 20명 선정, 전자책 출판 지원

독서플랫폼 '밀리의 서재'는 카카오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와 함께 전자책 출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응모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로, 브런치 작가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당선자 발표는 오는 5월31일이다.

밀리의 서재와 브런치는 20명을 선정해 당선자 전원에게 밀리 오리지널 전자책 출간 기회와 인당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한다.

출간된 전자책은 밀리의 서재에서 정식 서비스된다. 오디오북이나 팟북(채팅형 독서 콘텐츠) 등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심사는 유명 소설가와 작가, 평론가, 기자 등 4명이 맡는다. 브런치에서 연재되는 글이 에세이, 문학 등을 비롯해 자기계발, 경



제·경영, 시사, 라이프스타일, 문화·예술 등 다양한 만큼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김태형 밀리의 서재 유니콘팀 팀장은 "브런치와 함께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획부터 심사, 계

약 및 전자책 출판까지 반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라며 "밀리의 서재를 통해 브런치의 개성 있는 작품이 더욱 많은 독자와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순희/기자

순천시민과 함께하는 '2021 희망의 콘서트' 개최

한국을 빛낸 음악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

순천시는 한국을 빛낸 음악가들을 초청해 가곡,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 지휘자의 재미있는 해설이 있는 공연 '2021 희망의 콘서트'를 오는 25일 저녁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다시 시작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기획한 공연으로 대한민국 지휘계의 차세대 선두주자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지휘자 안두현이 이끄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쥔 '소프라노 홍혜란', 세계 최고 권위의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준우승 '바리톤 김기훈', 세계 음악계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첼리스트 '이상앤더스', 순천이 낳은 한국 성악계의 대표 '테너 이현'이 출연해 밝고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희망의 콘서트를 선보인다.

특히 연주 프로그램으로는 클래식 음악이 친숙하지 않은 일반 대중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익숙한 선율의 곡들로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차이코프스키 "안단테 칸타빌레", 하이든 첼로협주곡 제1번, 요한 슈트라우스 '봄의 소리 왈츠' 등의 가악곡과,



'목련화', '물망초', '산촌', '친애하는 후작님', '입술은 침묵하고' 등의 성악곡과 지휘자의 재미있는 해설과 진행으로 콘서트를 더욱 편안하고 감동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할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1 희망의 콘서트 공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품격 높

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며 공연예매는 티켓링크 또는 순천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면 된다.

최하은/기자

파주시립예술단 '우리학교 교가 부르기' 프로그램 진행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신입생들이 교가를 배울 기회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 파주시립예술단을 통해 '우리학교 교가 부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애교심 향상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장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파주시립예술단 합창

단의 짧은 온라인 공연과 교가 배우기로 구성돼 있다.

파주시 지역 내 초등학교 59개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 후 선정된 학교는 통일초등학교, 파주와동초등학교 2개교다.

교가촬영은 오는 19일 윤정 솔가람아트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촬영된 영상은 3월 24일부터 '파주시립예술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파주시는 점차적으로 대상 학교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귀순 파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이 교가를 재밌게 배우고 학교에서는 색다른 우리학교 교가 부르기 영상물을 통해 교가를 홍보하는 한편 선생님들의 학습 도구의 일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시인이 되는 첫 걸음, 문학 멘토링 시클래스"

전문가에게 직접 멘토링 받는 부천시민 전문작가 양성 프로젝트

부천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 도시 브랜드 고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역 문인이 직접 참여하는 '문학창의 멘토링 클래스' 시인작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문학 멘토링 시클래스'는 디지털 가속화 및 비대면 일상화에 따라 시민의 문화 역량 강화와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연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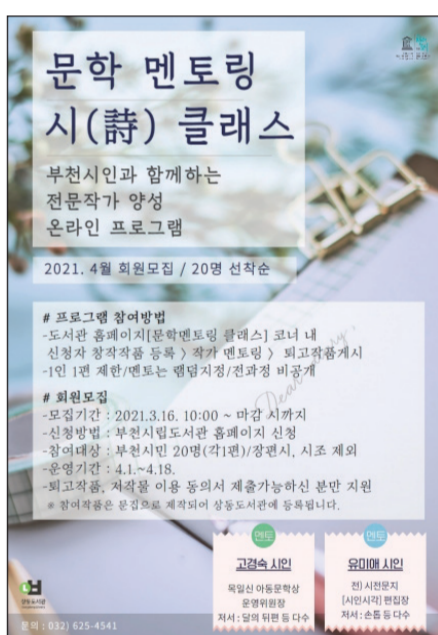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멘토링 클래스 코너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창작한 시를 게재하면 고경숙, 유미애 시인 등 지역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는 문인들이 멘토링부터 되고하기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참여 가능 인원은 4월과 5월에는 각 20명씩, 6월에는 10명까지다.

문학멘토링 시클래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월 16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각자의 고유한 자신만의 세계를 문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시 쓰기를 통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문학을 통해 일상을 되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디자인다해
TEL: 031.984.8245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00억 규모 에어돔 유치 나선다

문체부 공모 국비 등 사업비 100억원 규모 에어돔 설치 사업 유치 추진

춘천시정부가 국비 등 100억 규모의 에어돔 설치 공모에 뛰어들었다. 에어돔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춘천시민의 건강한 삶은 물론 전지훈련팀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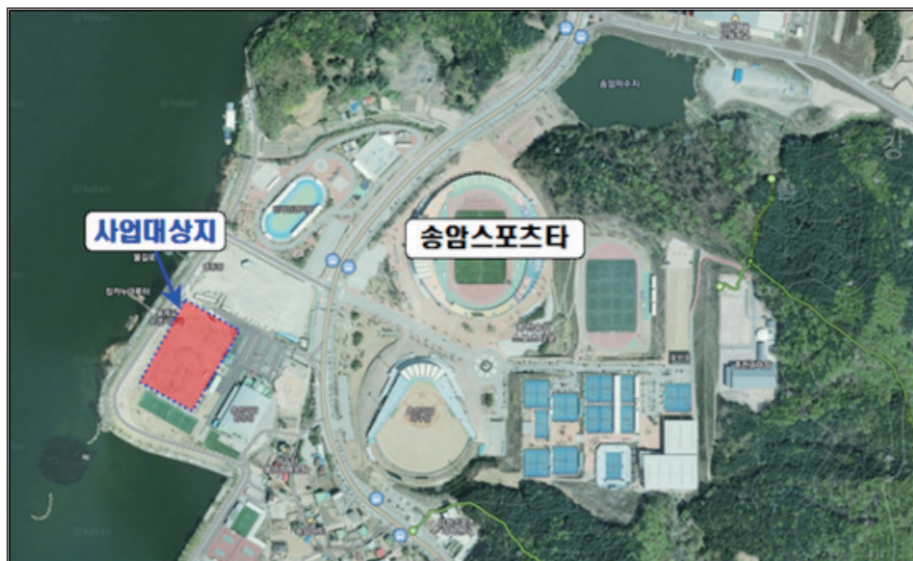
시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근 국내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공모했다.

에어돔은 공기압을 이용한 돔 형태의 구조물로 내부에 기둥과 대들보 없이 공간 형성을 할 수 있는 건축기법이다.

현재 시정부는 에어돔 시설 부지로 송암스포츠타운 내 송암동 644-17번지 일대를 고려하고 있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1만2,000㎡이며 에어돔 내부는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부대시설로 활용한다.

평상시에는 체육시설 및 전지훈련 시설로 재난상황 발생시 CP, 병동, 피난시설 등의 재난 관련 시설로 사



용한다.

오는 16일까지 내부검토를 거쳐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4월 중 계획서 및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전지훈련 특화 시설이 설치되면 국내 전지훈련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 수립을 거쳐 춘천시가 최종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삼척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적극행정' 전략적 추진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목표액 '3000억원'으로 설정

강원 삼척시는 2021년도 공모사업 발굴 및 2022년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조기 발굴을 통해 중앙부처 예산 편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2년도 국비 예산 확보 적극행정 전략회의'를 2021.03.15 08:40에 김양호 시장 주재로 개최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극복, 도시체질 개선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정부예산 3,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 공모사업 등 총368건 6,687억원의 사업을 발굴해 회의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할 방침이다.

시의 주요사업으로 우선 미래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탄소소재 그린뉴딜 카본빌리지 조성사업 30억원 인조흑연원료화 실증사업 5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3억원 세라믹 소재 기반 수소에너지 활

용 지원사업 11억원 등 소재와 에너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생활SOC 복합화, 도시재생 등 지역발전을 위한 세대복합어울림센터 19억원 해양복합스테이션 30억원 임원원터지구 도시재생 120억원 대진 호산항 어촌뉴딜 19억원 남양동 주차타워 20억원 등을 비롯해, 재난재해 해소와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남양지구 침수개선사업 76억원 읍면지구 상수도 확장사업 71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 18억원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수년간 노력해 온 연안 정비 및 동해항 3단계 개발 동서6축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 동해선 철도 전철화 사업의 정부계획 반영과 초기 사업비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비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며 아울러 철도, 고속도로 등 우리시 관련 국책사업의 타당성도 면밀하게 준비해 설득하는 한편 대내외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확보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코로나와 펜데믹의 장기화로 예년과 같은 경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중요한 시기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비 예산은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그리고 끈질기게 확보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간부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창녕군, 2022년도 국도비 2268억원 확보 총력 추진

신규시책 발굴 및 국도비 확보 전략 보고회

창녕군은 15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국도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국·도비 예산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2,044억원 보다 224억원 증가한 2,268억원으로 정하고 국정방향과 도정방향을 연계한 신규 핵심사업을 중점으로 사업별 대응방안 및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군이 발굴한 2022년도 사업은 창녕판 뉴딜사업을 포함해 355건, 2,376억원 규모로 주요 신규사업

으로는 가야테마문화유적 테마파크 조성 225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66억원 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16억원 관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2억원 고압중 대마를 하수관로 정비사업 72억원, 남지 고곡마을 하수도 중설사업 60억원 세계 따오기공원 조성사업 50억원 창녕군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9억원 우포늪 국가생태탐방로 확대조성사업 23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억원 종자산업기반구축 12억원 등이다.

특히 국비 신청과 정부예산 심의

과정 및 정부예산편성 시기별 대응 방안 등 국비 확보 핵심전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022년도 국도비 확보활동 매뉴얼'을 배부해 국도비 확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정우 군수는 "전 직원이 국도비 확보 매뉴얼을 숙지하고 최대한 활용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경영/기자

부평구, 지역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 1억원 지원

부평구는 15일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중소기업 10곳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부평구와 인천시, 선정기업에서 분담하는 형태다.

지원 항목은 제품 설계나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AR, 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또는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이다.

사업 유형은 바코드나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라벨, RFID태그를 적용하는 생산정보 디지털화 '기초구축'과 생산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 또는 실시간 제어하는 '고도화 사업'으로 구분된다.

기초구축비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00만원을, 고도화구축비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차준택 구청장은 "제품설계나 생

산 공정을 첨단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부평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전북도, 과수 생산·유통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21년도 과수사업 신청 접수...24일까지

전라북도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과수 생산·유통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까지 신청받는다.

대상사업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유통시설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이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은 집하선별·포장·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시선설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생산자단체 대상으로 개소당 1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과수 주산지 중 30ha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용수개발, 경작로 정비, 경지정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은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조성비, 꽃가루 채취장비, 건축비 등을 5ha 기준 7억 25백만원을 지원한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既설치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 노후시설의 교체·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과실브랜드육성사업은 과실 주산지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홍보비를 사업규모에 따라 9~30억원을 3년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2021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서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24일까지 시·군청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 김창열 농산유통과장은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군,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에서 사업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김승일/기자



장성군 재난지원금, "마중물 역할 톡톡히 하다"

3월 12까지 96% 지급 완료, 장성사랑상품권 34억원 환전

장성군이 지난 2월 4일부터 시작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3월 12일 완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전 군민에게 장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였다.

재원은 각종 행사성경비와 경상경비를 절감해 확보했다.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전 부서 공무원으로 인력을 편성해 주말에도 정상 근무를 하며 지급했다.

설 명절 전 87%를 지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3월 12일 지급이 종료된 현재 총 군민 4만 4,463명 가운데 96%인 4만 2,694명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재난지원금이 설 대목과 3월 개학 등 군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지급되어 군민들에게 더욱 요긴하게 사용됐다.

또한 위축되었던 민생경제가 피부로 느낄 만큼 회복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연휴를 앞둔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군에 따르면 지급기간 동안 가맹점으로부터 34억원의 상품권이 환전됐다.

특히 설 명절 전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11억원이 환전됐다



고 밝혔다.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이며 현금 사용까지 감안한다면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가 매우 컸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지역의 작은 식당에서 음식 나눔행사를 함께하는 등 훈훈한 소식들이 이어졌다.

전통시장과 소규모점포 이용 촉진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착한소비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유두석 군수는 "1년 이상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지칠대로 지친 군민들과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홍곤/기자

삼척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적극행정' 전략적 추진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목표액 '3000억원'으로 설정

강원 삼척시는 2021년도 공모사업 발굴 및 2022년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조기 발굴을 통해 중앙부처 예산 편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2년도 국비 예산 확보 적극행정 전략회의'를 2021.03.15 08:40에 김양호 시장 주재로 개최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극복, 도시체질 개선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정부예산 3,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 공모사업 등 총368건 6,687억원의 사업을 발굴해 회의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할 방침이다.

시의 주요사업으로 우선 미래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탄소소재 그린뉴딜 카본빌리지 조성사업 30억원 인조흑연원료화 실증사업 5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3억원 세라믹 소재 기반 수소에너지 활용 지원사업 11억원 등 소재와 에너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생활SOC 복합화, 도시재생 등 지역발전을 위한 세대복합어울림센터 19억원 해양복합스테이션 30억원 임원원터지구

도시재생 120억원 대진 호산항 어촌뉴딜 19억원 남양동 주차타워 20억원 등을 비롯해, 재난재해 해소와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남양지구 침수개선사업 76억원 읍면지구 상수도 확장사업 71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 18억원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수년간 노력해 온 연안 정비 및 동해항 3단계 개발 동서6축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 동해선 철도 전철화 사업의 정부계획 반영과 초기 사업비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비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며 아울러 철도, 고속도로 등 우리시 관련 국책사업의 타당성도 면밀하게 준비해 설득하는 한편 대내외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확보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코로나와 펜데믹의 장기화로 예년과 같은 경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중요한 시기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비 예산은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그리고 끈질기게 확보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간부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PCR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

가남읍 임시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최근 가남읍 관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에 의한 집단 감염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발동되어 가남읍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가남읍에서는 40개리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마을 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선제적으로 자율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화장실, 승강장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축산농가 및 화훼 농가에 대해서도 고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신속 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독려하고 있으나 최근에 외국인들에 의한 지역감염이 관내에서 발생해 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외국인들에 의한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가남읍에서는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요도로변에 한글 및 영문으로 현수막을 제작·게첨하고 전광판 및 SNS를 통해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각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관내 업체에 유선으로 연락해 외국인들이 PCR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관내 축산·화훼농가,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 농업인에 대해서도 PCR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편 가남읍 관계자는 “가남읍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므로 행정명령 발동과 더불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고용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성욱/기자



의왕시, 12월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나서

의왕시가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12월까지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 정비에 나선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업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장부로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올해 정비대상은 80세 미만의 관내 농지 소유자이며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원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

법 임대차 정확이 있는 농지 등은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는 추가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영준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사업이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쳐,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종균/기자

창원시,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전단지&벽보 퇴출

용호문화의거리 일원 공공시설물 168곳 광고물부착방지시트 설치

창원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전단지, 벽보 등의 부착 근절을 위해 시청 인근 용호문화의거리 일원의 신호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 168곳에 ‘광고물부착방지시트’ 설치했다고 밝혔다.

광고물부착방지시트는 테이프나 풀 등으로는 부착하기 어려운 작은 피라미드형 돌기가 달린 PVC 합성수지 형태의 특수 재질로써 불법유동광고물의 부착을 방지하며 갑전방지·야간 안전사고 예방하는 부가적인 기능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기존에 부착된 광고물의 흔적을 감싸 안아 더욱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가꾸어 줄 뿐만 아니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정감있게 디자인돼 도시 가로경관을 한층 더 경쾌하게 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이처럼 도시 가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 예방해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김포시, 영리목적 등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추진

김포시가 올해 6월 9일부터 상습적 위반 및 영리목적 등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상습적 위반과 영리목적 등을 위한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포시는 적절한 개정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를 초과하는 무단 용도변경,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와 다가구주택 내부를 무단으로 개조해 5가구 이상 방을 늘리는 일명 ‘방조끼기’ 임대행위 및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가중부과될 예정이다. 이근수 건축과장은 “상습적 위반 및 영리목적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법 개정과 관련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연수구, 연수e음 가맹점 불법유통 예방 단속 실시

혜택+ 가맹점 등 대상...오는 16일~31일 區·코나아이 합동단속

연수구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인 연수e음 발행 확산에 따라 각종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연수e음 가맹점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수구와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함께 하며 결제 혜택이 높은 혜택+ 가맹점과 주민신고 가맹점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세부 점검내용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區 내 가맹점은 2021년 3월 9일 기준 7,968개소이며 이 중 혜택+가맹점은 1,259개소로 가맹점 수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단속 관련 사전 홍보활동과 함께 합동단속반의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연수e음 상품권 사용자, 가맹점 등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화순군, 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무료대여

사전 점검으로 화장실 이용 주민 불안감 해소

화순군이 다중 이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연중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대여 가능하다.

화순군 소재 학교, 사업체, 음

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군청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전파 및 렌즈형 탐지기로 2대를 무료 대여할 수 있고 대여 기간은 3일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무료대여로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다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민·관 합동 특별점검

16~17일 불법배출 예방 및 단속·감시활동 강화

광주 동구는 16~17일 양일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 환경단체로 이뤄진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민원 유발사업장과 다수 민원발생 사업장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사장 비산먼지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약취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에 집중적으로 민간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활동

에 상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별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적정운영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현장지도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통해 미세먼지 자체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구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전문성 있는 언론인 연수

언론 조사, 분석,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뉴스서비스

뉴스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과학적인 정부광고 집행

읽기문화 강연회

전 국민 대상의 미디어 교육

소외계층 매체 취재, 제작 지원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국민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언론과 국민을 잇는 이음줄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배우 전여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글리치> 주연 확정!

배우 전여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글리치'에 주인공으로 합류하며 대세 행보를 이어간다.

'글리치'는 정체불명의 불빛과 함께 사라진 남자친구의 행방을 쫓던 주인공이 UFO 커뮤니티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미스터리한 비밀의 실체에 다가서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다.

주인공 홍지효 역을 맡은 전여빈은 UFO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정체 모를 존재를 쫓는 여정을 함께 하게 된 홍지효 캐릭터를 입체적이고 신선한 연기와 다채로운 매력으로 완성시켜며 극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영화 '죄 많은 소녀', '천문: 하늘에 묻는다', '해치지 않아'는 물론, 드라마 OCN '구해줘', JTBC '멜로가 체질' 등 다수의 작품에서 눈에 띄는 열연으로 뜨거운 호평을 불러

일키며 괴물 신예의 탄생을 알린 바 있는 전여빈은 현재 방송 중인 tvN '빈센조'에서도 독종 변호사 '홍 차영'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활약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4월 9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나원의 밤'에서는 삶의 끝에 선 '재연' 역으로 또 한 번 연기 변신을 기대케 하고 있는 것. 이에 미스터리, 스릴러, 코미디가 결합된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글리치'에서 전여빈이 어떤 연기와 캐릭터 소환력으로 대 중을 매료시킬지 기대감이 고조된다.

한편, 전여빈과 진한세 작가, 노덕 감독의 첫 만남과 새로운 설정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글리치'는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돌입했으며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전순희기자



배우 김영광, '안녕? 나야!' 촬영 중 커피차 릴레이에 쫓행복!

2021년 최고 대세 배우 김영광이 드라마 '안녕? 나야!'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 배우 진기주와 국내팬, 여러나라의 해외팬들로부터 받은 커피차에 '쫓행복'을 느끼며 세상 다 가진 표정을 짓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광은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안녕? 나야!'(극본 유승우 / 연출 이현석 / 공동제작 비온드레이,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의 주인공 한우혁 역으로 '직진 연하남' 매력을 뽐내며 시청자들의 눈을 호강 시켜주고 있다.

15일 소속사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서는 그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받은 커피차를 배경으로 장난기 넘치는 표정과 세상 누구보다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한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팬 뿐만 아니라 해외 일본, 대만, 미얀마로부터 온 커피차 선물은 해외에서도 통하는 그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팬들의 선물에 환한 미소와 행복한 모습으로 보답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배우 진기주와의 인연이 눈길을 끈다. 드라마 '조면에 사랑합니다'를 인연으로 절친한 친구 관계를 이어온 진기주는 코믹한 사진을 게시한 커피차를 보내며 현실 친구의 우정을 과시했다.

한편 김영광은 영화 '미션 파서블'(감독 김형주 / 제작 kth / 제작 ㈜노시스컴퍼니 / 배급 ㈜메리크리스마스)까지 흥행기록을 세우며 현재 40만 관객을 동원, 2021년 가장 주목 받는 배우로 거듭났다. 해당 영화에서는 임규되면 바로 움직이는 흥신소 사장 '우수한' 역으로 100% 대역 없는 반전 매력의 액션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순희기자



'펜트하우스 2' 이지아, 매회 강렬한 존재감 남겨 화제!

SBS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 2'에서 이지아가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시청자들의 극찬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주 이지아는 '펜트하우스 2'에서 시즌 1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등장하여 안방극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극중 주단태(엄기준)에게 키스를 하는 도발적인 심수련(이지아)의 모습은 짧은 등장이었지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지아는 '펜트하우스 1'에서 주축 역할을 했으나, 주단태(엄기준)에게 죽임을 당하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펜트하우스 2' 속 이지아의 재등장은 시청자들을 열광케 했고, 이어지는 방송에서 그녀만의 독보적인 캐릭터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드라마를 흥 미진진하게 이어가고 있다.

특히, 13일 방송에서 본격 감시 가동이 펼쳐진 첫 장면인 헬스장에서의 이지아는 180도 달라진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가 어우러진 레깅스와 트레이닝복을 입고 등장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주변의 이목으로 이 곳을 벗



어나야 한다는 비서들의 저 지에 완벽히 무슬까지 선보이며 시청자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그리고 주단태와의 몸싸움으로 위험한 상황에 닥친 이지아의 마지막 장면으로 극의 긴장감을 고조 시켰다.

한편 '펜트하우스 2'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의 1번지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 복수극을 그린 이야기로 매주 금, 토 오후 10시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슈돌' 국민 막내 진우, 돌잔치 하는 날! 꽃도령 한복→판사 봉 돌잡이 '귀여움 넘쳤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국민 막내 진우가 어느새 돌을 맞이했다.

3월 14일 방송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 373회 '오케이 광대!' 편에서는 전건나블리 가족의 막내이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막내 진우의 돌잔치가 그려졌다. 한복을 입고 꽃도령으로 변신한 진우와 전건나블리의 행복한 돌잔치가 TV 앞 시청자들의 마음도 행복으로 물들었다.

임신 소식부터 전 국민의 축복을 받았던 진우. '슈돌' 첫 등장부터 모두를 심공하게 했던 진우가 매일매일 폭풍 성장하는 모습으로 랜선 이모-삼촌들의 마음을 살살 녹이고 있다. 기어 다니던 진우가 어느새 걷고, 뛰기까지 하는 모습은 시청자도 감동하게 했다. 이날 태어난 지 1년을 맞이한 진우는 볼 만한 등반 실력으로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

주호 아빠는 진우의 등반을 자제하기 위한 훈육을 준비했다. 밥상으로 오르막길을 만들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려 한 것. 그러나 진우의 등반 실력은 아빠 생각보다 더욱 대단했다. 진우는 상을 실 새 없이 오르막내리락 하며 훈육 현장을 놀이터로 변화시켰다. 즐거운 진우의 웃음에 결국 주호 아빠도 함께 놀아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전건나블리 가족은 진우의 돌잔치를 위해 한복을 맞췄다. 이때 건후는 전통의 멋에 푹 빠져 남다른 한복 사랑을 보여줬다. 특히 건후가 가장 사랑한 '빨간색 한복'의 정제는 바로 치마와 저고리. 편견 없이 한복 치마를 입고 즐거워하는 건후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진우는 물론 나은이와 건후까지 한복을 갖춰 입고 본격적인 돌잔치



가 시작됐다. 한복부터 돌잡이까지 완벽하게 한국식으로 진행된 돌잔치에서 진우는 판사 봉을 잡으며 장래에 대한 공금증을 더했다.

또한 도플갱어 가족의 특별한 축하 인사도 있었다. 영상통화로 오랜만에 만난 연우-나은이와 건후-하영이의 인사가 시청자들에게도 반가움을 안겼다. 도플갱어 가족은 훗

날 울산 전건나블리 가족의 집에 놀러 올 것을 약속해 이들의 만남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행복을 선사하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15분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결혼작사 이혼작곡' 전수경, 훈훈함 가득 담은 종영소감 공개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결혼작사 이혼작곡'(극본 피비(Phoebe, 임성찬)/연출 유정준, 이승훈/제작 (주)지담미디어, 초록밴드미디어)에서 섬세한 연기력으로 주인공 이시은 역을 그려낸 배우 전수경이 훈훈함 가득 담은 종영소감을 공개해 화제다. 드라마를 향한 애정이 물씬 드러나 눈길을 끈 것.

오늘 15일(수) 오전, 전수경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 공식 SNS (www.facebook.com/dnifdpsxj)에는 전수경의 '결혼작사 이혼작곡' 촬영 현장 비하인드 컷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 전수경은 마지막 회 대본을 들고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단아함을 보여주는가 하면, 함께 한 스태프와 밝은 미소로 사진을 찍는 모습으로 촬영장을 밝혀주고 있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다.

더불어 진심을 가득 담은 종영 소감도 함께 전했다. 그는 드라마 속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묻는 말에 6회에서 파스 냄새 때문에 이혼하는 해륜(전노민 분)의 말을 듣고서도 아이들을 위해 계란말이를 만드는 장면을 꼽으며, "남편의 잔인한 말에 가슴이 메어 통곡이 나오는 상황에도 아이들을 위해 감정을 숨기는 시은의 상황이 많이 동화되 되었다. 그래서 직접 연기를 할 때도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팠다."라며 캐릭터에 100% 동화된 모습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을 전했다.

또한 함께한 배우들과의 호응을 묻는 질문엔 "가족들과 함께 찍는 장면이 많았는데, 해륜과는 오랜 친구, 부부 같은 느낌이었으며, 향기(전혜린 분), 우람(임한빈 분)이 또한 자기 몫을 너무나 잘해주어서 진짜 가족 같았어요."라며 함께한 동료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이어 그동안 고생한 시은에게 한 마디를 묻는 말엔 "시은아 그동안 남편과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 했어, 이제는 조금만 너를 위해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너의 선한 마음을 하늘이 알아 주실 거야, 힘내."라며 캐릭터에 대한 귀여운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주 시은을 위해 함께 울어 주시고 화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그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종영 소감을 마쳤다. 이로써 배우 전수경은 질끈 묶은

헤어부터 수수한 의상까지 화려했던 이전 캐릭터들과는 달리 소박한 모습으로 변화를 준 새로운 비주얼은 물론, 섬세한 감정표현과 정확한 디션 등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호평을 얻으며 믿고 보는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한편, TV CHOSUN '결혼작사 이혼작곡'은 지난 13일(월) 16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최만식기자

'77타→66타' 임성재 "3R 욕심부려 부진...만회해 다행"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상금 1500만 달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소감을 밝혔다.

임성재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의 소그래스 TPC(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 합계 7언더파 281타로 공동 17위에 올랐다.

임성재는 2라운드에서 6언더파를 몰아치며 공동 5위까지 오르고 우승까지도 넘봤지만 3라운드에서 5타를 잃고 부진해 공동 48위로 하락했다. 마지막 날 경기에선 이글 1개와 버디 6개를 잡고 더블보기 1개를 범해 6타를 줄였다.

임성재는 최종 라운드를 마친 뒤 "3라운드에서 원하는 샷이 너무 안돼서 오늘 티오프 전에 좋은 샷감을 유지하려고 연습했는데 코스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오늘 많은 버디 기회를 만들었고 많은 버디를 잡았다"고 밝혔다.

11번홀(파5)에서 잡은 이글에 대해선 "핀까지 약 215m 정도 남았는데, 앞바람이 살짝 불어서 3번 하



이브리드로 공격적으로 쳤다. 핀을 바로 보고 쳤는데 그제 정확히 핀으로 갔고 그린 에지에 떨어져서 1.5m 거리에 붙었다"라고 돌아봤다.

임성재로서는 3라운드가 두고두고 어렵다. 임성재는 "3라운드 무빙데이 때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런지 멘탈적으로도 흔들렸고 차분하지 못했다.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렇게 만회해서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라운드에선 모든 게

다 안 됐다면 오늘은 드라이버, 아이언 샷, 퍼트까지 다 괜찮았다"고 덧붙였다.

임성재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혼다 클래식에서 처음으로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임성재는 "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디펜딩 챔피언으로 대회에 나간다. 연습, 준비 잘하겠다. 그 코스도 또 쉽지 않은 코스이기 때문에 차분히 잘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광수/기자

농구 스타도 '학폭 논란'...현주엽 "다 지어낸 말들"

이번엔 농구입니다. 2000년대 최고의 스타 포워드인 현재는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주엽(46)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대 최고의 농구선수 H씨의 학폭 진실'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습니다. H의 2년 후배라고 주장한 이 누리꾼은 과거 H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고 그로 인해 운동을 그만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H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독보적인 존재로 기술돼 있습니다. 선수로서 기량이 특출했음 뿐 아니라 어머니가 국가 대표 출신 농구인, 아버지도 부유한 사업가였기에 실력과 배경을 두루 지닌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게시글에 담긴 출신 학교 정보가 현주엽을 추정하게 만든 가운데 해명을 요구하는 누리꾼들 지적에 현주엽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학창 시절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폭



력은 절대 없었다"면서 "마치 구체적으로 사실인양 늘어놓으면 비록 그것이 거짓이라도 사람들이 믿어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최근 스타플레이어를 둘러싼 각종 폭력 논란으로 한국 체육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성용을 비롯해 물고문과 살충제 흡입, 흥기 위협 등을 자행한 유명 프로야구 선수까지.

여자프로배구에서 시작된 스포츠

계 폭력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혐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예외없이 법정 다툼을 불사한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려 피해자를 구제하고 억울한 혐의자 양산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선 학교 운동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깨끗이 털어 내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순희/기자

'벌써 맹타' 이용규, 해자 계약되나... 이런 선수가 1억이러니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이용규(36)가 연습경기부터 꼬박꼬박 안타를 적립하고 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하고 있다.

이용규는 1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두산과 연습경기에 2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장해 2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특히 1회 말 두산 외국인 선발 투수 아리엘 미란다(32)를 상대로 때려낸 것도 있어 고무적이었다. 지난 11일 두산과 연습경기에서도 2타수 1안타

를 올리며 뛰어난 타격감을 과시했다.

현재 키움은 시즌을 준비하며 한화, 두산과 나란히 2차레씩 연습경기를 치렀는데 이용규가 안타를 때려내지 못한 경기는 3월 6일 대전 한화전밖에 없다. 홍원기(48) 키움 감독의 체력 안배 속에 경기 전체가 아닌 4~5이닝 정도만 소화하고 있지만 고감도의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즌 종료 후 한화에서 방

출된 이용규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키움과 총액 1억 5000만원을 받는 조건에 계약했다. 보장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키움 입장에서 FA(프리에이전트)급 선수를 '단돈' 1억원에 영입한 것이다. 벌써 이용규를 향해 '해자 계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격에 비해 반찬 구성이 많아 가성비가 좋다는 모편의점의 '김해자 도시락'에 빗댄 것이다.

이용규는 '클럽 하우스 리더'로서 역할도 해주고 있다. 키움 외야수 허정협(31)은 이용규에 대해 "경쟁을 떠나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용규 선배가 팀에 와서 더 좋은 것 같다"고 웃었다.

벤치 역시 이용규에 충분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 이번 시즌 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코너 외야수로 기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홍원기 감독은 "(이용규) 선수들을 이끌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원한다"고 기대했다.

정동희/기자

추신수에 스타벅스까지... 상기된 로맥, '로맥아더' 진가 보여줄까



SSG 외국인 타자 제이미 로맥(36)은 요즘 항상 웃는 얼굴이다. 원래도 친화력이 강한 성격이었는데, KBO 리그 5년차가 되다보니 행동이 거의 한국 사람이다. 대중 말해도, 적적 알아듣는다.

로맥의 기분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 이유의 복합적인 결과다. 우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다. 선수단 분위기가 그렇다. 김원형 감독과 새 코칭스태프가 부임하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로맥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캠프 때부터 코칭스태프가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면서 "SK에서 선수생활을 한 코칭스태프가 많아 친밀감이 있다"고 했다.

두 번째는 SSG의 인수다. 물론 동료들이나 프런트가 달라진 건 아니지만 야구단 이름이 바뀌고, 유니폼이 바뀌고, 그에 따라 팀 분위기가 바

뀐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로맥은 '랜더스'라는 이름에 대해 "재미있는 것 같다. 인천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황도 있고 그렇다"면서 "새로운 이름이고 새로운 시작이다. 기대가 된다. 아이들도 새로운 유니폼 받을 수 있어 기대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 "신세계에서 스타벅스를 매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깔깔 웃었다.

세 번째는 메이저리그 올스타 경력의 소유자인 추신수(39)의 합류다. 로맥과 추신수는 미국에서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 아무래도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오래 뛰었고, 로맥은 마이너리그 생활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외국인 선수인 로맥이 보기에라도 경외의 대상이다. 로맥은 추신수의 합류가 팀 전력은 물론 분위기 전환에 큰 몫을 할 것이라 자신한다.

로맥은 "추신수가 한국으로 오게 되면 SSG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고 들었다. 우리 팀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굉장히 기쁘다"면서 "간단한 인사 정도를 나눴는데, (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쁘다"고 두팔 벌려 환영했다.

이처럼 좋은 기운은 경기장에서의 좋은 스윙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맥은 14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kt와 경기에서 0-0으로 맞선 1회 무사 만루에서 좌월 만루포를 터뜨렸다. kt 선발이자 지난해 13승 투수인 소령준의 높은 쪽 공을 놓치지 않고 경쾌하게 방망이를 들렸다.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그 외에도 로맥은 최근 아웃이 되더라도 잘 맞는 타구를 내보내고 있다.

로맥은 "이번 캠프는 이동거리가 멀지 않아서 너무 좋다. 플로리다에서 한국,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져서 신체적으로 유리한 것 같다"면서 국내 캠프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으로 컨디션 좋고, 연습경기와 청백전을 통해서 메커니즘과 타 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좋은 스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활짝 웃었다.

올해도 로맥은 김원형 감독이 선택한 4번 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후반기 대만전하며 재계약에 결정한 로맥도 이제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진다. 어느덧 5년차. 통산 135홈런은 이미 구단 외국인 타자 역사상 최다 홈런이다. 공교롭게도 랜더스는 인천상륙작전을 진두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으로부터도 하나의 영감을 받았다. '로맥아더'라는 별명을 가진 로맥의 스윙이 인천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흥미롭다.

전순희/기자

'근육 부상 SON' 벤투호 합류, 한일전 명단 발표... 정우영 첫 발탁

아스널전에서 부상 당했던 손흥민이 한일전에 나설 준비를 했다.

대한민국 A대표팀은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일본과 친선전을 앞두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앞선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희궁로 축구회관에서 한일전에 나설 명단을 발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손흥민의 한일전 참가는 합류로 결정됐다. 그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아스널과 북런던 дер비에서 근육 부상으로 전반 15분 만에 교체됐다. 이로 인해 불발 가능성이 커졌지만, 명단에 포함 시키며 한일전 출전을 노리게 됐다.

또한, 황희찬과 이강인 등 유망파가 추가로 합류하여 한일전 승리에 힘을 보탠다.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은 최초 발탁됐으며, 동명인인 벤투랑 미드필더 정우영과 함께 손발을 맞추게 됐다.

그러나 원톱의 핵심인 황의조와 중



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메이징귀안)와 손준호(산동 루닝)는 소속팀의 반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3월 25일 한일전 대표팀 명단 GK: 조원우(울산현대), 김승규(가시와 레이솔), 김진현(세레소 오사카)D F: 김영권(갑파 오사카), 홍철, 김태환, 원두재(이상 울산 현대), 박주호, 박지수(이상 수원FC), 김영민(강원FC), 윤

종규(FC서울) MF: 주세종(갑파 오사카), 윤빛가람, 이동준(이상 울산 현대), 황희찬(RB 라히프치히), 정우영, 남태희(이상 알사드), 엄원상(광주FC), 나상호(FC서울), 이강인(발렌시아),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정우영(프라이부르크)FW: 이정형(경남FC), 조영욱(FC서울)

최광수/기자

제4회 영월군 별마로기 야구대회 개막

제4회 영월군 별마로기 야구대회가 오는 3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4개월간 영월군 별마로 야구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영월군 5개 팀과 정선군 1개 팀 약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주 일요일마다 조별 풀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개최되지 못하였지만, 올해는 영월군이 코로나19를 대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회가 사회인 야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변 지역 야구 동호인 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증진의 기회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

최만식/기자



FC목포, 김포FC 상대로 K3리그 홈 개막전

20일 오후 3시 목포국제축구센터.올해 축구팀 명칭 변경

FC목포가 오는 20일 오후 3시 목포국제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김포FC를 상대로 2021 K3리그 홈 개막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전행사 없이 본경기만 진행하며 관중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이내만 입장 가능하다.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해 경기장 입장시 발열체크, 관람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식전 이벤트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후원품을 나눠주는 등 안전한 경기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지난 2009년 12월 창단한 목포시청 축구팀은 올해 1월 1일자로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축구팀 명칭을 '목포시청 축구팀'에서 'FC목포'로 변경했다.



지난 2020년 부임한 정현호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FC목포는 지난해 K3리그를 5위로 마무리했다. FC목포는 비시즌 기간 내실있는

선수보강과 전지훈련을 바탕으로 한 중 강화된 전력을 구축해 올시즌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일/기자

www.kumho-waterpolis.com



자연을 품다!
사람을 품다!

여유, 낭만, 힐링의 강변라이프!
첨단산업과 사람의 어울림!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비전의 땅에
금호워터폴리스가 옵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문의
053) 350-0300